






혼자가 아니야

[illegible]

목차

	I. 프롤로그	4
	II.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소개	10
	III. 통계로 보는 지원사업	16
	1 전체 신청자 통계	19
	1. 나이, 학력, 거주지	19
	2. 직업	22
	3.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28
	4. 임금	30
	5. 치료비 부담 방법	31
	6. 산재신청하지 않은 이유	32
	2 지원 대상자 통계	34
	1. 나이, 학력, 거주지	34
	2. 건강 문제 경험	38
	3. 회복지원금 지출 상위 항목	46
	4. 회복 관련 변화	47
	5. 지원사업 만족도	48
	IV.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 노동자	52
	1 심층인터뷰 총괄 분석	54
	1. 청년여성의 직업병과 재해 경험	55
	2. 청년여성의 산재보상제도 이용 경험	65
	3. 청년여성 직업 건강의 취약 요인	70
	4. 지원사업을 통해 본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의 필요	89
	2 여성의 눈으로 읽어 본 산업안전보건법	92
	3 네트워크 모임	98
	V. 에필로그	114
	1 지원사업에 함께한 사람들	116
	2 청년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125

I

프로그램



4년의 여정, 우리가 만난 청년여성들

4년이 흘렀다. 일하는 청년 여성을 찾아 나선 지난 4년은 가려져 있고 밀려나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찾고자 한 시간이기도 했다. 2022년 사업 첫해에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의 모임, 노동조합과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청년 여성이 놓인 현실에 대해 공부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개인이 겪는 문제가 그저 개인적인 것인지 직종, 연령, 지역 등 사회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자 했다. 여성이라서 겪는 문제라고 막연히 짐작은 했지만 젠더화된 노동의 실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서울과 성남, 안산, 울산, 전주의 여성 단체 활동가들은 여성과 노동자라는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과 지역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들려주었다.

이처럼 청년 여성이 놓인 다양한 현실을 사전조사 형식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그 해부터 사업도 시작되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만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콜센터, 물류센터,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도시에 살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이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들, 방송·영화·웹툰·영상제작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다. 중위소득, 또는 그 이하를 받으면서 아플 때, 다쳤을 때 직장이나 사회안전망의 도움이 아닌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기간제, 계약직이거나 고용주인 기관장이 고용 지속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영 강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처럼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수업진행, 고객관리, 청소까지 스포츠센터의 직원과 닮은 일을 했지만 노동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다. 전자산업이나 제과제빵 공장처럼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직종보다 높은 비율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만 정작 일하다 다치면 개인적인 부상으로 처리하고 치료비 일부를 회사가 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산재보험을 비껴가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어느 직종에서 일하던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실직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 현장,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실질적 노동을 하면서도 여성들은 일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언제라도 잘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했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분야에서 일하지 않기에 편한 일을 한다고 간주되면서 그 강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비슷했다.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겪는 공통된 문제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전통적(?)인 문제들이었다. 전체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방송작가들은 자료조사나 방송 대본을 쓰는 일보다 갖은 심부름과 빈틈 메우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같은 돌봄과 감정노동이 더 힘들다고 했다. 제조업 공단에서 일하는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전기, 화학, IT기술 등 전문 분야가 있음에도 점심 메뉴 주문하기, 관리자 한약 챙기기 같은 요구를 여전히 받고 있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자리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수직적인 위계 문화 때문에 이직을 고민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만난 청년 여성들은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거나 값어치가 없는 일을 한다고 여기는 공고한 가부장 문화 속에 자신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청년 여성들은 수도권으로 가서 일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수도권으로 가면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으며 성차별적 발언이나 관행도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공업과 화학산업이 집결되어있는 공업 도시에서 만난 활동가는 청년 여성들의 일자리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도시를 떠나는 중에 위계 문화가 덜한 시민단체에 취업한 청년 여성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각자도생 불안의 시대. 고통을 이야기하면 약자가 되는 시대이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준 청년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성들의 노동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자재를 들다가, 대용량 아이스크림 통을 옮기다가, 양봉 농장에서 50kg짜리 벌통을 트럭에 싣다가 허리 부상을 입고, 대형 제과점에서 빵반죽을 성형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수당이 높은 야간근무만 하면서 전세금을 모으던 여성은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로 건강이 무너졌고,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은 벌점 제도 때문에 아파도 휴가를 쓰지 못해 팔목에 염증이 퍼지고 경쟁적 수당체계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여성은 독해야 살아남는다는 구시대적 충고를 여전히 듣고, 상급자의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갖다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막내 문화에 지쳤다고 말했다.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폭력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폭력은 청년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있었다. 하는 일이 없다, 공부 좀 하라, 예의 지켜라, 멘탈 관리 잘 하라, 무식하다, 밥 한번 먹어 주면 되잖아 같은 막말을 듣고 때로는 **년 같은 욕설도 들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사무실, 공장,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았다. 남성 상급자가 주먹을 들어 보이고, 어깨를 밀치는 시늉을 하고, 무시하고, 감시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많았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당하는 거대한 폭력 뒤에는 작은 폭력들이 있고 그것은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일어났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식사를 만드는 급식조리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시설물과 화장실을 쓸고 닦는 청소노동자, 이들은 거의 나이 많은 여성들이다. 일은 고되지만 급여는 적게 나온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은 거의 되지 않는다.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폐암에 걸려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암처럼 큰 사건이 아닌 조리실에서의 사고들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병원에 다닌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다음날 출근할 수 있을 만큼 급식조리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지만 교육 당국도 학부모들도 알아주지 않는다. 조리나 청소처럼 가정 안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에 기대던 영역은 사회로 나와서도 가치가 떨어지거나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노동으로 폄하당한다. 돌봄 노동은 축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돌봄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산재로 보상하기 위해 축정하려는 노력조차 거의 없다. 일하다 아픈 여성들은 상업화된 의료시장에서 몸을 추스른다. 청년 여성들도 같다.

여성의 노동은 일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선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노동을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던 시대, 남성의 것으로 보는 시선에서 얼마나 멀리 왔을까. 산업화 시기 남성 가부장의 모습이 여전히 표준으로 놓여 있고 —그때도 여성들은 일하고 있었지만—, 21세기의 일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보호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를 위협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유급휴가가 있는 직장, 퇴직금이 있는 직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 감시당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매우 적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률의 급여나 사회보험, 각종 수당이 있는 근로계약이 없이 일하던 사람들, 식당·카페·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내던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주저앉았다. 도시를 떠받치는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던 청년 여성들이, 제작이 중단된 방송 현장, 공연이 멈춘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청년 여성들이 우울증을 앓는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기사에 오르내렸다.

이처럼 일하다 생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실직·이직에 이르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그저 경제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이 있다. 일하는 젊은 여성들은 받아야 할 존중과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나이와 성별에 따른 위계 문화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청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저평가된 자신의 노동에 대해 대항하기 어렵다. 여성들은 흩어져 있다.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같은 갖은 이름의 일자리에서 불안을 안고 일하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공공기관 연구원까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결되고자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만난 청년 여성들은 이야기를 청하면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였다. 각자도생 불안의 시대, 고통을 이야기하면 약자가 되는 시대이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준 청년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II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소개

II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소개

2022년에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시작한 뒤 4년이 흘렀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청년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청년여성 노동자가 겪는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로 여겨지지 않고, 산재보험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 기록하고자 했다. 4년간 1천명이 넘는 청년여성이 산재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그중 220명에게 회복지원금을 지원했다. 39명의 청년여성 노동자를 실제로 만나 인터뷰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회에 공유했다.

사업 이름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2022-2025)
사업 목적	산재 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여성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문제 사례를 누적하고,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다.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한다. - ‘청년여성이 노동 때문에 겪는 건강 문제와 어려움’ 사례를 누적하고,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한다. -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문제를 사회에 공유한다.
신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공고일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날 사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 월 소득이 공고일이 속한 해당연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2022년



신청기간	2022.09.07. - 09.30
결과발표	2022.10.24.
지원	50명
심층인터뷰	11명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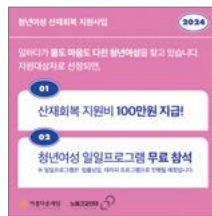


신청기간	2023.06.05. - 06.23
결과발표	2023.07.24.
지원	60명
심층인터뷰	11명

2024년



신청기간	2024.06.05. - 06.23
결과발표	2024.07.24.
지원	55명
심층인터뷰	11명



2025년



신청기간	2025.05.02. - 05.30
결과발표	2025.06.25.
지원	55명
심층인터뷰	6명



III

통계로 보는 지원사업

1
전체 신청자 통계

2
지원 대상자 통계

Ⅲ

통계로 보는 지원사업



3장에는 산재회복 지원을 신청한 청년여성들의 신청서와 전화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를 정리하였다. 통계를 따라가다 보면 일하다가 건강 문제가 생겨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린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누구인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여성들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려볼 수 있다. 청년여성과 노동과 건강을 연결하는 시도에 이 통계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1 전체 신청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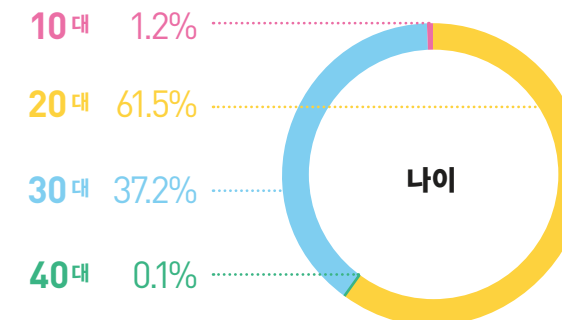
전체 신청자 통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사업에 신청한 1,042명을 기준으로 한다. 분석 항목 전반적으로 매해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이러한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연도별 표를 삽입하였다.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며, 업무에서 비롯된 건강 문제를 겪고, 문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세 가지를 모두 겪기도 한다. 자신의 건강 문제가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여기지 않았고, 치료비를 홀로 부담했다.

※ 2024년부터는 전체 신청자 중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 제외 후 통계 산출

1. 나이, 학력, 거주지

본 사업에서는 '청년여성'의 나이 기준을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따랐다. 2025년에는 20대 56.7%(93명), 30대 40.9%(67명), 10대 2.4%(4명) 순으로 신청자가 분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총합으로 보아도 20대 61.5%(641명)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나이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대	6	1.5%	1	0.5%	1	0.4%	4	2.4%
20대	266	66.5%	124	62.0%	158	56.8%	93	56.7%
30대	127	31.8%	75	37.5%	119	42.8%	67	40.9%
40대	1	0.3%	-	-	-	-	-	-
합계	400	100.0%	200	100.0%	278	100.0%	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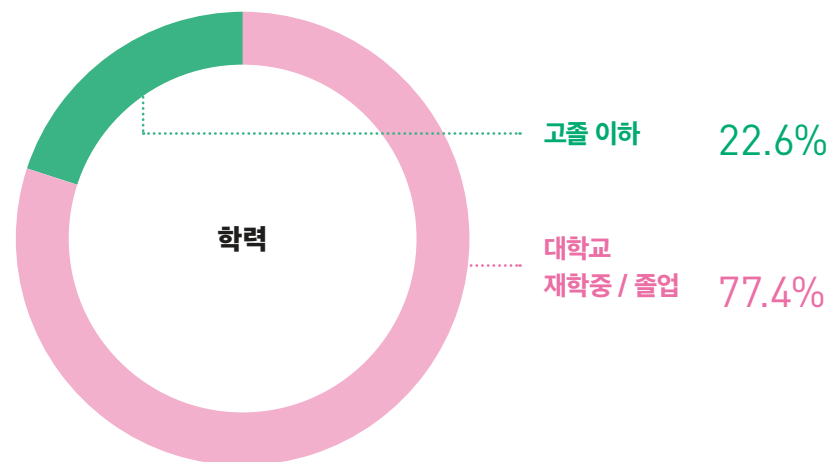


나이	전체	
	인원	비율
10대	12	1.2%
20대	641	61.5%
30대	388	37.2%
40대	1	0.1%
합계	1042	100.0%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학교 재학 중/졸업'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나, 본 지원사업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취업한 청년여성의 취약성을 살펴보고자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전체 신청자 1,042명 중 고졸 이하 학력이 22.6%(235명), 대학교 재학 중/졸업 학력이 77.4%(807명)였다.

학력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졸 이하	109	27.3%	33	16.5%	46	16.5%	47	28.7%
대학교 재학중 / 졸업	291	72.8%	167	83.5%	232	83.5%	117	71.3%
합계	400	100.0%	200	100.0%	278	100.0%	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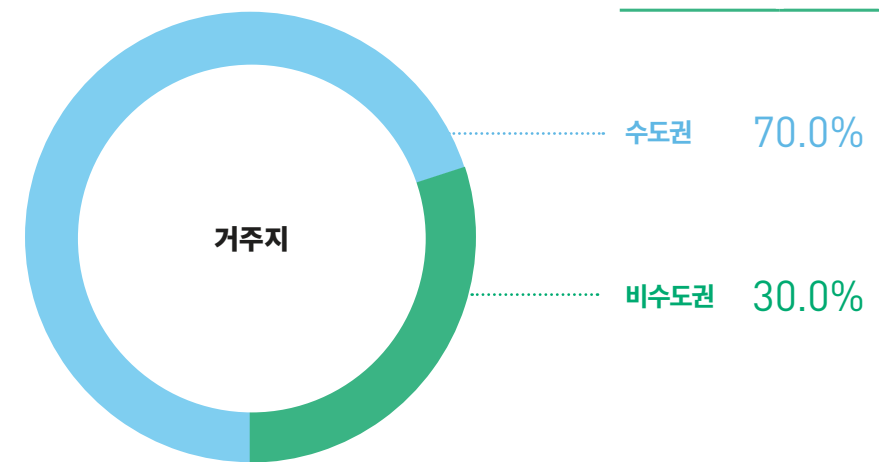
학력	전체	
	인원	비율
고졸이하	235	22.6%
대학교 재학중/졸업	807	77.4%
합계	1042	100.0%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청년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는 53.9% (8,545천명)이며, 이 중에서 77.7%(6,642천명)는 일하는 청년이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52년에는 청년 중 58%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 역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 전체 신청자 중 70.0%(729명)가 수도권에 산다고 응답했으며,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여성은 30.0%(313명)이다. 거주지에 따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일례로 2024년 지원사업 신청자 278명 가운데 22.6%(68명)는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 채널을 통해 본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거주지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239	59.8%	158	79.0%	226	81.3%	106	64.6%
비수도권	161	40.3%	42	21.0%	52	18.7%	58	35.4%
합계	400명	100.0%	200	100.0%	278	100.0%	164	100.0%

학력	전체	
	인원	비율
수도권	729	70.0%
비수도권	313	30.0%
합계	1042	100.0%



* 경향신문. <미래위 “2052년 수도권에 청년 58% 거주…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해야”>. 주영재 기자. 2024년 10월 21일.

1인 자영업자	CS 상담원	HW 개발	IT기획자	NGO 활동가
OLED 회사 물류이동	PM	solution architect	UX/UI 디자이너	VIP코디네이터(의전)
가구영업직	가축방역업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감자탕 알바, 홀서빙
강사	개발자	개인방송 및 아르바이트	거리예술가	건물관리실, 경리
건설업 사무직	건설현장	건설회사 경리직	게임 개발자	게임디자이너
결혼정보 회사	경력 마사지	경리	경리 회계직	경영지원 업무
경영지원팀 매니저	계약직 무용수	고객상담 및 사무 등	고객센터 상담원	고급 소고기 오마카세 홀서빙
고깃집 알바	고용센터 로컬에디터	골프장 식음팀	골프장 프런트	공공기관 계약직
공공기관 사무직	공공기관 취업상담사	공공기관 행정보조	공무원	공방 대표
공연	공연 기획자	공익법인 사무직	공장 알바	공장 현장직
공장생산직	공항 보안검색	과외	광고 디자이너(아트디렉터)	광고기획자
교사	교육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운영 담당	교육회사	교회 방송 업무
구청 자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국회 보좌진	국회의원 인턴비서	군대 스케줄 조정 CS
군무원	군인	그래픽 디자이너	그릴버거조리 기름 교체 및 물류 입고	그림책 기획작가

한중영 컨설턴트	근로감독관	금융업 창구	기간제 근무	기술상담 콜센터
기업 내 행정지원	기업 연구소 연구원	꽃집	꽃집 직원	내시경실 세척일
냉동생지유통회사	사무업무, 베이킹업무	냉동식품 제조 공장 생산직	네일아티스트	노동조합상근자
노무법인 사무원	노조 조직담당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사	눈썰매장 알바
뉴딜일자리 홍보직	니트 원단 직원	다이소 가맹점 직원	다이소 매장 시간제 알바	다큐멘터리 촬영
다큐멘터리 편집 외 각종 영상 제작	대기업 사무직	대기업 증권사 리셉션	대안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상근자	대외협력업무
대학 교직원	대학 기숙사 조교	대학 연구실 연구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대학교 조교
대학도서관 사서	대학원생 (실험실 연구)	대한민국 해군 장교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분석&인공지능 개발	도넛 판매 알바	도배	도서관 계약직	도서물류
도예공방	도자기제작	도장 사범	동물병원 간호사	동물병원 리셉션
동물보건사	드라마 보조작가	드라마 촬영팀	드럭스토어 아르바이트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회사 기획자	디자인생산, 컴퓨터 업무	디지털드로잉 그림작가	떡볶이집 직원	라디오 디제이 방송
라디오 리포터 프리랜서	레스토랑직원	렌트카 알바	리서치 연구원 근무	마케터
마케팅 디자이너	마트 계산원	매장관리 및 판매직	매장운영	메뉴개발

메이크업 분장	모니터링 재택업무	목공방 운영	무대조명설치	무역 사무직
무용수 프리랜서	문화기획 코디네이터	문화기획사 (행사대행)	문화센터 아르바이트	문화예술 강사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재단 인턴	물류센터	물류팀 사무직	물리치료사
뮤지컬 반주 및 음악 스텝	뮤지컬 배우	미술강사	미용사	미용실 프리랜서
미용인턴	바리스타	박물관 안내원	반도체 사무직	반려동물 마케팅
발달장애아동감각 통합치료사	발레	방과후 강사	방사선사	방송 및 그외 콘텐츠 구성작가
방송 제작팀	방송 편성MD	방송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국 편성운영	방송작가
방송편성	배달음식점 알바	배우	백화점 아르바이트	백화점 외 팝업스토어 행사 판매 아르바이트
백화점 판매직	번역	법률사무원	변호사 마케팅	병원 간호사
병원 안내데스크	병원 피부관리사	병원업무보조	보건소 민원응대 알바	보건소 인턴
보건소 코로나 기간제	보건의료직	보건직 공무원	보육교사	보험대리점 총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사무직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부동산 임대관리 사무직
취폐 알바	비영리단체 활동가	비주얼 기획 및 스타일링	빵집 알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사무 및 안내보조원	사무보조	사무직	사서	사설구급차 간호사
사운드 에디터	사진관 스텝	사진보조알바 호텔 알바	사회복지 관련 보조 강사	사회복지법인 일경험 인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품기획자	생산부서 사무직	생산직 알바
생산직 직원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서비스기획자	서비스센터	서빙

서점 직원	성인음악학원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상담원	세무 사무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쇼핑몰 배송 알바 (포장,검수,택배)	쇼핑몰 옷 패킹, 택배 포장 등	술집 알바	숯불닭갈비 전문점
스리디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스타트업 총무매니저	스터디카페 청소	스포츠센터 내 수영강사
승강기 검사원	시각디자인	시민단체 활동가	시스템엔지니어	시험 감독관
식당 알바	식당 주방보조 및 출서빙	식품회사 품질관리팀	신경계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아동미술학원 아르바이트	아동심리치료사	안경사	안내데스크 직원	애견 훈련사
애견미용사	애견의류 제작	애니메이션 배경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약국 아르바이트
양봉장	양식 조리사	어린이 체육교육시설	어린이집 교사	언어치료사
에디터 및 카피라이터	에스테틱 직원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회사 입찰업무, 현장관리 업무 등	엔지니어링회사 사무직
엔지니어링회사 용역 입찰	연구 및 행정직	연구간호사	연구원	연극 배우
연극 및 뮤지컬 조연출	연주자	영상 PD	영상 제작	영상디자이너
영상제작자	영상편집자	영양사	영업	영화
영화 시나리오 창작	영화 촬영팀	영화관 알바	영화관련 프리랜서	영화미술팀 팀장
예술계 홍보기획팀	예술영화전용관 직원	예술인	온라인 HR 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	온라인 마케터
온라인쇼핑몰관리	웃가게 알바	와인판매직	요가 강사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요식업	요식업 프랜차이즈 매니저	요양병원 야간근무	요양원조리사	운동강사
워터파크 알바	웨딩홀 아르바이트	웹 서비스 기획자	웹개발자	웹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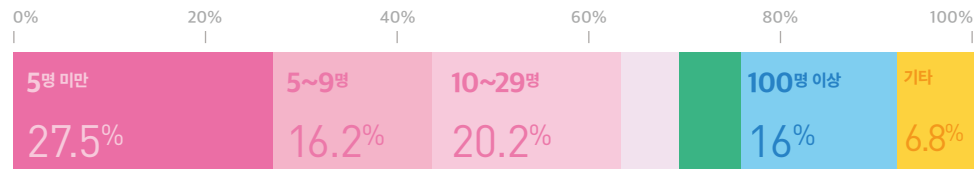
웹디자이너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개발	웹소설 PD	웹소설 작가	웹툰 PD
웹툰 보조작가	유치원교사	유통업 사무직	유튜버	유튜브 PD
유해물차단	음식점 알바	음악 감상실 알바	의류 매장 알바	의류매장 직원
의류벤더 수출구매팀 근무 사원	의약품 웹디자이너	이모티콘 작가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진행	이사알바
이자가야알바	인바운드 콜센터	인재개발팀 매니저 (운영기획, 총무행정)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배송팀 사원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인테리어	인테리어 회사 설계팀	인테리어디자이너	인형탈공연
일러스트레이터, 시각 디자이너	임상병리사	입시체육학원 알바	자동차 전시장 리셉션	자살예방 교대근무 상담사
자영업 일반음식점	자영업(디저트카페)	자영업(음식점업)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유학년 시간제 강사
자전거 정비 및 판매	작업치료사	잡지사 취재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사
전시 작품제작	전화상담원 인바운드	정보보안 업무	정부지원사업 행정직	제과제빵사
제빵기사	제약회사 생산직	제조 물류	제조업 경리직	제품개발매니저
제품디자이너	제품판매 및 고객 응대 서비스업	조교	조리사	주류 판촉 아르바이트
주민센터 민원담당	주방 보조	주방 요리사	줄넘기 학원 강사	중고폰 판매업
중소기업 HR 기획	중소기업 개발자	중소기업 사무직	중소기업 연구원	중소기업 회계팀
중학교 보건지원강사	중환자실 간호사	주얼리 판매	직업군인 훈련중	직업상담사
직업훈련 교육생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책방	책편집 및 디지털 디자이너	철골 QC
청년복지 활동가	청년센터 매니저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도사	체험학습관 해설사 근무

초등교사	초등교사 기간제	총무	출자출연기관 사무직	출판 마케터
출판 편집자	출판사 고정직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킨집 아르바이트
카페	카페 매니저	카페 바리스타	카페 알바	커뮤니티센터 서무 주임
커피강사	컨템포러리 서커스 아티스트 및 서커스 강사	콘텐츠 개발직	콘텐츠 마케터	콘텐츠디자이너
콜센터	키오스크 조립 및 A/S	태권도 사범	택배 물류센터	택배 일용직
택배 포장	택배기사	테라피스트	텔레마케팅 영업 상담	통신매장 판매직
통신업 대리점 업무 지원 및 회계	특허사무소 알바	파견계약직 사무직	파티쉐	판매직
팝업 행사 운영 관리자	패션 MD	패션디자이너	패스트푸드 매장 관리자	패스트푸드점 알바
펀드레이저	편의점 알바	편집 디자이너	품질보증팀	프랜차이즈 빵집 샌드위치 제조
프랜차이즈 영업직	프랜차이즈 음식점 조리파트	프로그램(행사) 기획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리랜서
프리랜서 강사	프리랜서 그림책 작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모델	프리랜서 배우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	프리랜서 프로덕션 디자이너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플로리스트	피부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피시방 알바	피아노학원 운영	피트니스 영업담당	필라테스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관리자	학원강사	항공기내 승무원	항공부품업체 품질관리팀
항공사 지상직	해외직구 구매대행	햄버거 가게 알바	행사 기획운영	행사 진행요원
행정복지센터 컴퓨터 보조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호텔 세척(설거지) 파트 계약직	호텔 알바
호텔 카운터 및 룸서비스	호텔 프론트직원	홈패션디자이너	홍보콘텐츠제작	화장품 검수
화장품개발자	화장품판매 및 매장 관리	회계, 경리	회계사무원	

3.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건강 문제가 생긴 당시 일하고 있던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모 측면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27.5%(287명)로 가장 많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청자가 60.6%(631명)에 달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청자는 16.0%(167명)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 및 야간 수당, 근로시간 상한선 같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청년여성 노동자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느라 건강을 해치고 있을 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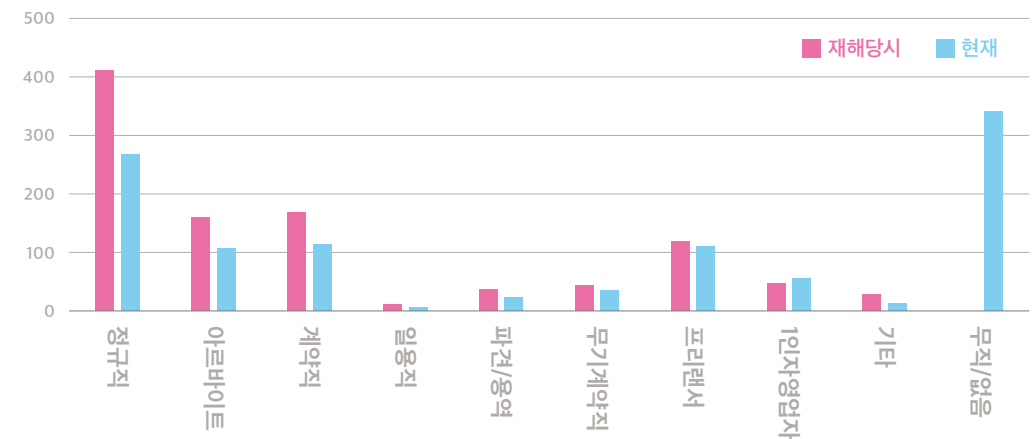
재해당시 사업장 규모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명 미만	124	31.0%	62	31.0%	50	18.0%	51	31.1%
5~9명	58	14.5%	36	18.0%	50	18.0%	25	15.2%
10~29명	96	24.0%	37	18.5%	52	18.7%	26	15.9%
30~49명	26	6.5%	10	5.0%	15	5.4%	14	8.5%
50~99명	29	7.3%	12	6.0%	22	7.9%	9	5.5%
100명 이상	59	14.8%	36	18.0%	51	18.3%	21	12.8%
기타	8	2.0%	7	3.5%	38	13.7%	18	11.0%
합계	400	100.0%	200	100.0%	278	100.0%	164	100.0%



재해당시 사업장 규모	전체	
	인원	비율
5명 미만	287	27.5%
5~9명	169	16.2%
10~29명	211	20.2%
30~49명	65	6.2%
50~99명	72	6.9%
100명 이상	167	16.0%
기타	71	6.8%
합계	1042	100.0%

고용 형태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청년여성 노동자의 취약성이 더 드러난다. 전체 신청자 1,042명 중 33.2%(346명)가 건강 문제가 발생한 뒤 무직 상태가 되었다.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이 39.7%(414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건강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24.8%(258명)로 하락했다. 보통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지만,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소율 순으로 보면 파견 노동자가 3.1%(32명)에서 1.3%(14명)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가장 크게 줄었고,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4.6%(48명)에서 2.9%(30명)로 정규직 증감률과 같은 감소율을 보였다.

고용 형태 변화	재해당시		전체 현재		증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정규직	414	39.7%	258	24.8%	▼156	▼38%
아르바이트	164	15.7%	104	10.0%	▼60	▼37%
계약직	173	16.6%	111	10.7%	▼62	▼36%
일용직	5	0.5%	4	0.4%	▼1	▼20%
파견	32	3.1%	14	1.3%	▼18	▼56%
용역	8	0.8%	7	0.7%	▼1	▼13%
무기계약직	48	4.6%	30	2.9%	▼18	▼38%
프리랜서	121	11.6%	107	10.3%	▼14	▼12%
1인자영업	50	4.8%	51	4.9%	▲1	▲2%
기타	27	2.6%	10	1.0%	▼17	▼63%
무직/없음	-	-	346	33.2%	▲346	-
합계	1042	100.0%	10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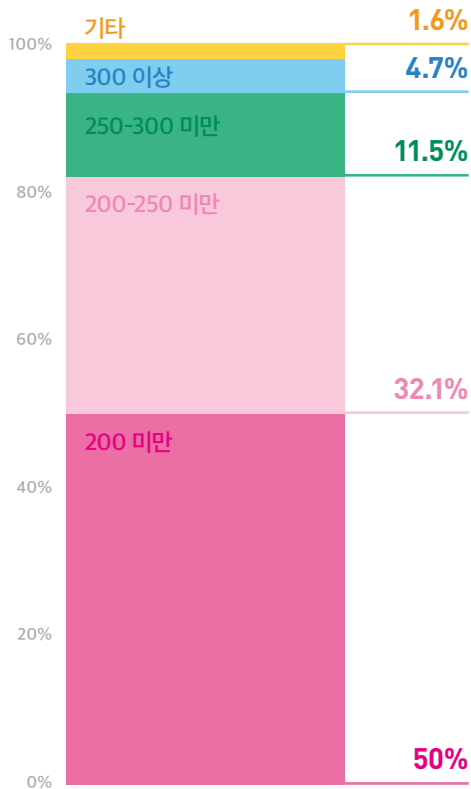


4. 임금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에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이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월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50.0% (521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2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82.1%(856명)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이 250만 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셈이다. 신청자마다 임금을 적을 때 세전·세후 기준이 달랐다는 점, 단시간 노동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해당시 임금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미만	231	57.8%	107	53.5%	116	41.7%	67	40.9%
200 이상 250 미만	109	27.3%	65	32.5%	97	34.9%	64	39.0%
250 이상 300 미만	37	9.3%	9	4.5%	51	18.3%	23	14.0%
300 이상	19	4.8%	11	5.5%	14	5.0%	5	3.0%
알수없음/기타	4	1.0%	8	4.0%	-	-	5	3.0%
합계	400	100.0%	200	100.0%	278	100.0%	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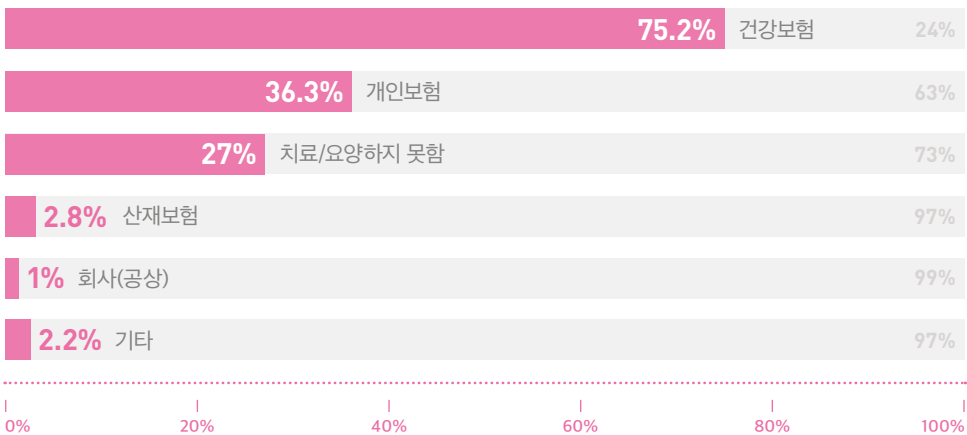
재해당시 임금	전체	
	인원	비율
200미만	521	50.0%
200 이상 250 미만	335	32.1%
250 이상 300 미만	120	11.5%
300 이상	49	4.7%
알수없음/기타	17	1.6%
합계	1042	100.0%



5. 치료비 부담 방법

작은 회사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여성 노동자가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까. 치료비와 요양비를 부담한 방법에 모두 표기해달라고 한 결과,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 노동자의 75.2%(784명)는 건강보험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했다. 실비보험 등 개인보험을 사용했다는 사람이 36.3%(378명), 이마저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치료하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이 27.0%(281명)였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답한 사람은 2.8%(29명)에 불과했다. 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들을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 문제의 원인이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들 중 29명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요양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한국 산재보험제도가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 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요양비 부담방법(중복응답)	전체		
	응답수	비율(응답수 기준)	비율(인원기준)
건강보험	784	52.1%	75.2%
개인보험(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등)	378	25.1%	36.3%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요양하지 못함	281	18.7%	27.0%
산재보험	29	1.9%	2.8%
회사 부담(공상)	10	0.7%	1.0%
기타	23	1.5%	2.2%
합계	1505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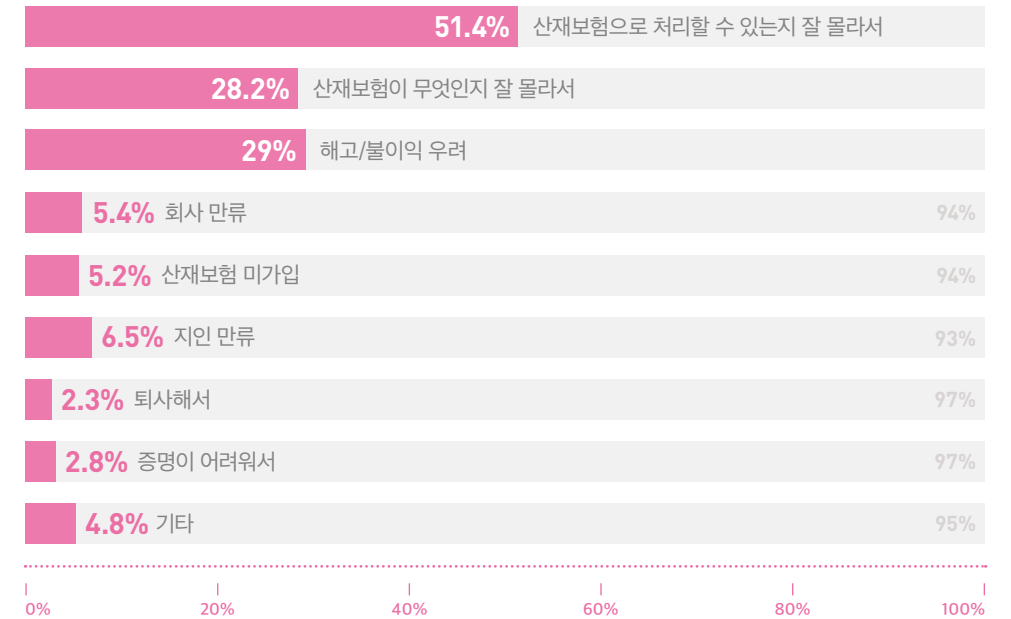


6. 산재신청하지 않은 이유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지원사업 신청자 1,042명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였다. 51.4%(536명)가 해당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어서 29.0%(302명)가 '해고/불이익이 우려되어서', 28.2%(294명)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정신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프리랜서라서", "회사에서 해줄 가능성이 낮아서" 등의 이유로 자신이 겪는 건강 문제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밖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이 정신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인정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적은 사람도 있었다.

산재미신청 이유(중복응답)	전체		
	응답수	비율(응답수 기준)	비율(인원기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536	37.9%	51.4%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294	20.8%	28.2%
해고/불이익이 우려되어서	302	21.4%	29.0%
회사가 만류해서	56	4.0%	5.4%
산재보험 미가입(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54	3.8%	5.2%
지인(주변에서) 만류해서	68	4.8%	6.5%
퇴사해서	24	1.7%	2.3%
증명이 어려워서	29	2.1%	2.8%
기타	50	3.5%	4.8%
총 응답	1413	100.0%	-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청년여성들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산재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산재보험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노동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점, 일과 건강 문제 연관성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프리랜서 등은 포괄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일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노동자 중 아주 소수만 산재보험으로 치료하고 재활한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제도에서 소외된 청년여성 노동자가 말하는 이유에 귀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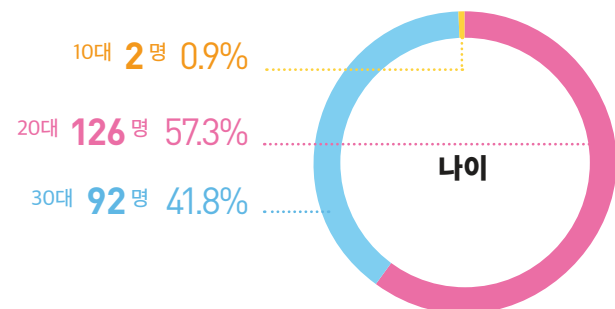
2 지원 대상자 통계

본 지원사업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산재회복 지원금으로 각 1백만원(1회)을 지원하여 '회복'에 필요한 곳을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 통계는 지원금을 받은 2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들이 호소한 건강 문제는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제도가 직장에 없어서 참고 일하거나, (조)부모나 자식을 부양할 생계비를 벌어야 해서 쉬지 못하기도 했다. 지원금 대부분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상병수당, 유급병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이 재정비되어야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청년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1. 나이, 학력, 거주지

지원 대상자 220명을 나이로 구분하면 20대가 57.3%(126명)로 가장 많고, 30대 41.8%(92명), 10대 0.9%(2명) 순이다.

나이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대	1	2.0%	-	-	-	-	1	1.8%
20대	35	70.0%	38	63.3%	29	52.7%	24	43.6%
30대	14	28.0%	22	36.7%	26	47.3%	30	54.5%
합계	50	100.0%	60	100.0%	55	100.0%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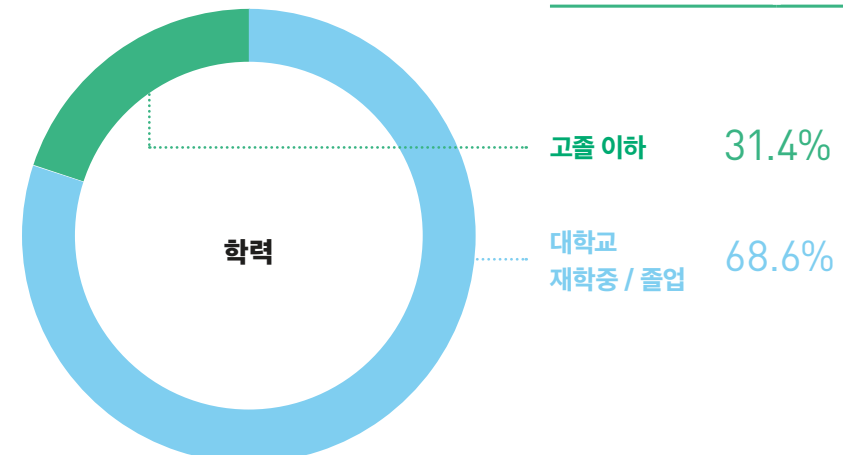


나이	전체	
	인원	비율
10대	2	0.9%
20대	126	57.3%
30대	92	41.8%
합계	220	100.0%

학력으로 보면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이 68.6%(151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이 31.4%(69명)로, 약 7대 3의 비율이다. 전체 신청자 기준으로는 약 8대 2의 비율을 보였으나,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 시장에 진출한 청년여성 노동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결과 비율이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학력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졸 이하	24	48.0%	15	25.0%	16	29.1%	14	25.5%
대학교 재학중/졸업	26	52.0%	45	75.0%	39	70.9%	41	74.5%
합계	50	100.0%	60	100.0%	55	100.0%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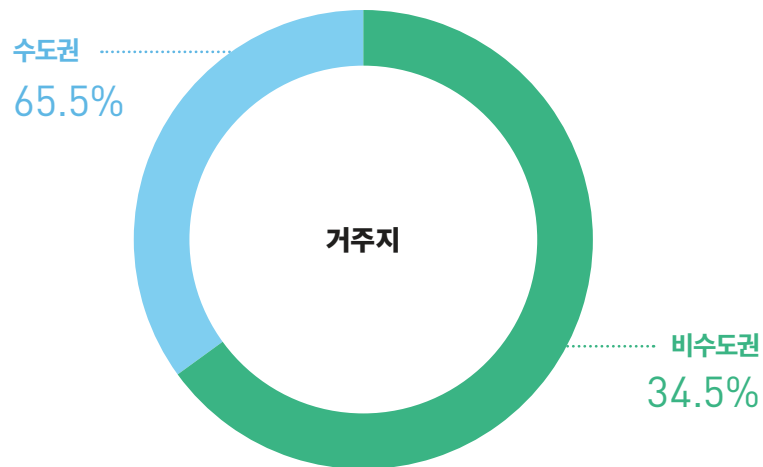
학력	전체	
	인원	비율
고졸이하	69	31.4%
대학교 재학중/졸업	151	68.6%
합계	220	100.0%



지원 대상자 220명 중 65.5%(144명)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이주 여부를 별도 설문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신청서 및 심층인터뷰에서 학업 또는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말하는 청년여성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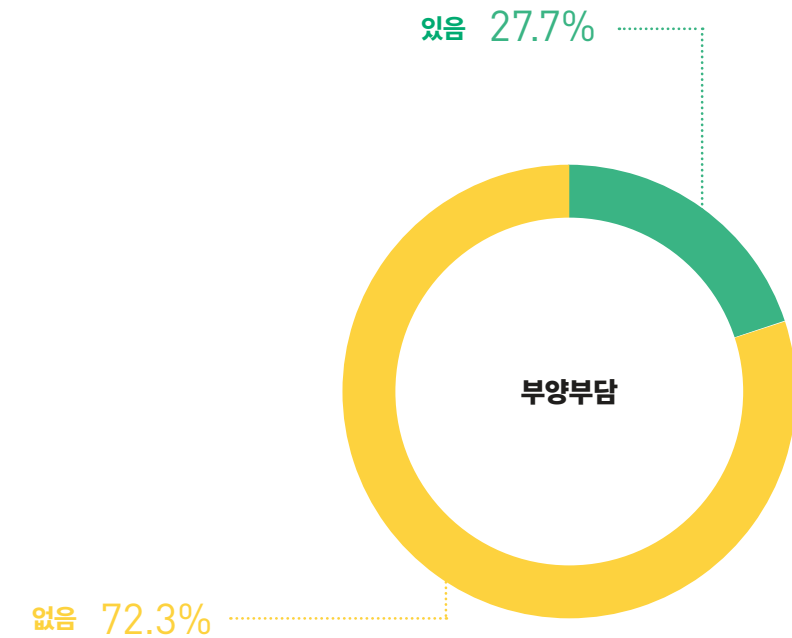
거주지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32	64.0%	41	68.3%	40	72.7%	31	56.4%
비수도권	18	36.0%	19	31.7%	15	27.3%	24	43.6%
합계	50	100.0%	60	100.0%	55	100.0%	55	100.0%

학력	전체	
	인원	비율
수도권	144	65.5%
비수도권	76	34.5%
합계	220	100.0%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지원 대상자 가운데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족 등을 부양하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년여성이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같이 사는 청년은 전체 청년 중 1.5%이며, 청년 본인이 돌봄 책임을 맡는 경우가 전체 청년 중 0.6%이다. 본 지원사업에서는 생계비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인 부양 부담이 있다고 보았는데, 지원 대상자의 27.7%(61명)가 부양 부담을 지고 있었다. 61명 중에는 장애가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돌봄 노동을 병행하는 '가족돌봄청년'인 청년여성 노동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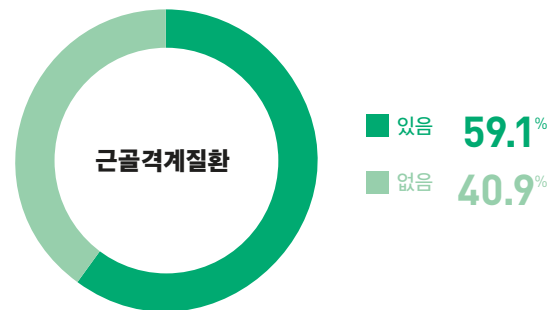
부양부담 유무	전체	
	인원	비율
있음	61	27.7%
없음	159	72.3%
합계	220	100.0%



① 허리·목·어깨...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어디가 아플까? 지원 대상자가 겪는 건강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신청서상 병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220명 가운데 59.1%(130명)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청년여성은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청년여성은 몸에 부담이 갈 만큼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이들은 장시간 노동 또는 반복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어깨·손목·무릎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해당 문제를 호소한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사무직 노동자부터 밤샘 작업이 많은 영상 콘텐츠 편집 노동자, 편의점·카페에서 물류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빵집에서 일하는 파티시에,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네일아트 1인 자영업자, 웹툰 작가 등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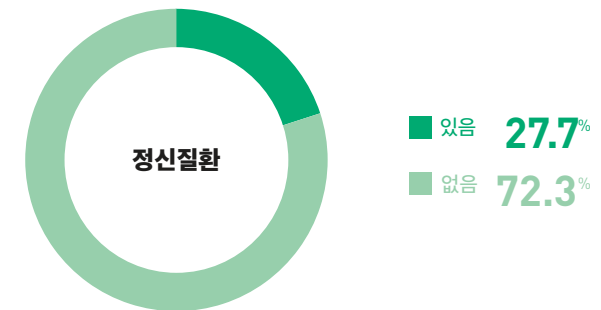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전체	
	인원	비율
있음	130	59.1%
없음	90	40.9%
합계	220	100.0%



② 정신질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환은 2016년 69건에서 2024년 471건으로 6.8배 증가*했다. 전체 신청 건수로 보아도 2016년 167건에서 2024년 810건으로 늘었다. 한국의 낮은 산재 신청률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일 때문에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증명하듯, 본 지원사업 신청서에 정신건강 문제를 최소 1개 이상 적은 지원 대상자는 220명 중 27.7%(61명)이다. 전체 신청자를 기준으로 보면, 1,042명 중 39.6%(413명)까지 비율이 상승한다.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들이 지목한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업무 과중 등의 업무상 문제였다. 2023년에는 정신질환 ‘있음’ 지원 대상자 17명 중 15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 2024~2025년에는 정신질환 ‘있음’ 지원 대상자 38명 가운데 17명이 업무상 문제, 14명이 직장 내 괴롭힘, 7명이 직장 내 성폭력, 7명이 이용자(고객)로부터 폭언·폭행을 겪었다. 두 가지 이상의 문제 상황을 경험한 사람도 9명이었다.

정신질환	전체	
	인원	비율
있음	61	27.7%
없음	159	72.3%
합계	2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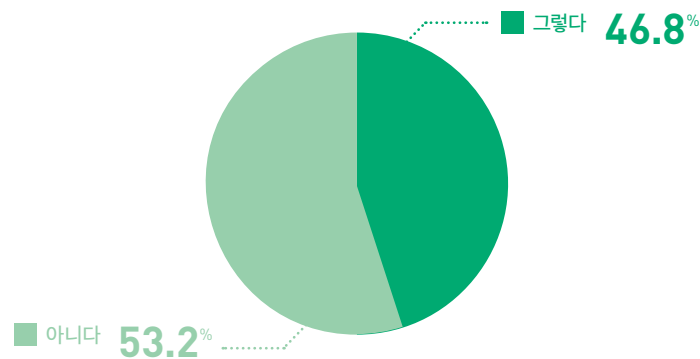


* 안전신문. <‘정신질환 산재’ 8년 만에 7배↑... 적응장애·우울증 순>. 정민혁 기자. 2025년 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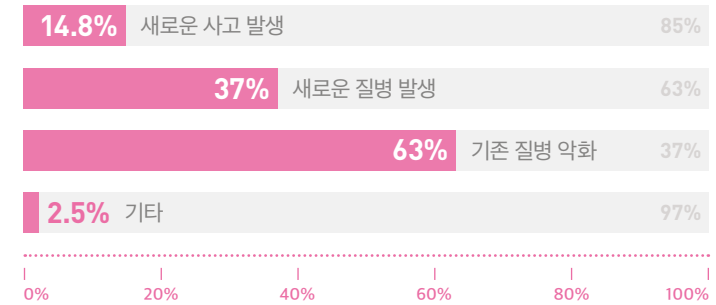
③ 지원금 수령 이후 추가 산재 경험

2025년 9월,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2022~2025년 지원 대상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새롭게 발생한 건강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지원 대상자 220명 중 173명(응답률 78.6%)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지원금 수령 이후부터 현재 사이에 기존 건강 문제가 악화하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묻자 46.8%(81명)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존 질병의 악화, 새로운 사고 또는 질병을 경험했다. 건강 문제의 원인을 모두 표기해달라는 질문에 81명 중 63.0%(51명)가 기존 질병 악화를 꼽았다. 지원금 수령 당시에는 없었던 질병이 생겼다는 응답이 37.0%(30명), 새로운 사고를 겪은 사람은 14.8%(12명)였다.

기존 건강 문제 악화 또는 새로운 건강 문제 발생 여부	전체	
	인원	비율
그렇다	81	46.8%
아니다	92	53.2%
합계	1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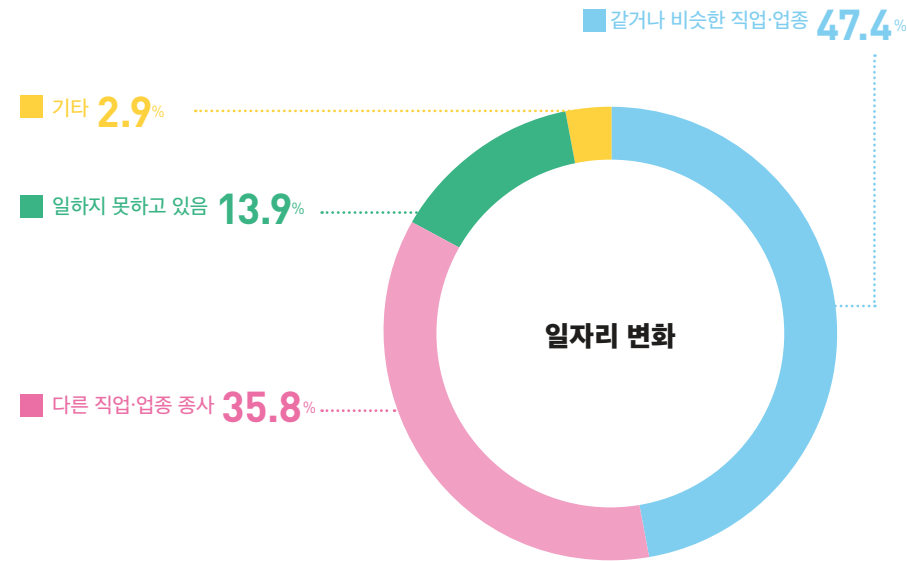
원인(복수 응답)	전체	
	응답수	비율(인원기준)
새로운 사고 발생	12	14.8%
새로운 질병 발생	30	37.0%
기존 질병 악화	51	63.0%
기타	2	2.5%
합계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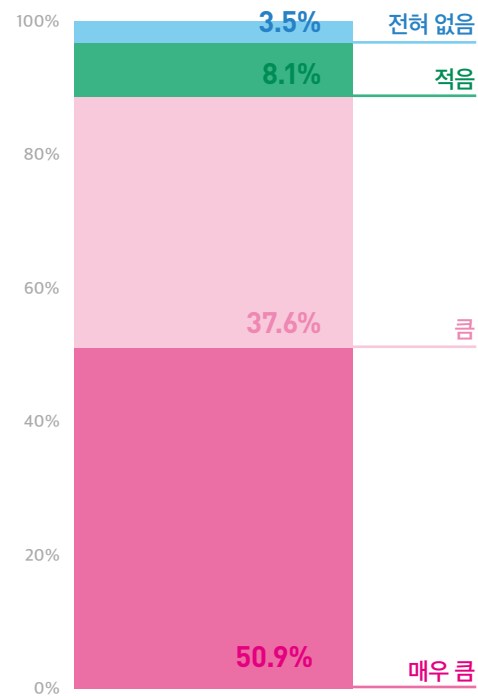
④ 산재 이후 일자리 변화

지원 대상자 대부분은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쉬지 못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회복하지 못한 채 노동을 이어갔고, 과거에 한 번 발생한 건강 문제는 청년여성 노동자의 삶 전반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원금 수령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일자리 변화를 묻자, 173명 중 13.9%(24명)가 일하지 못하고 있었고, 35.8%(62명)는 다른 직업·업종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같거나 비슷한 직업·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47.4%(82명)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일자리 변화	전체	
	응답수	비율(인원기준)
같거나 비슷한 직업·업종 종사	82	47.4%
다른 직업·업종 종사	62	35.8%
일하지 못하고 있음	24	13.9%
기타	5	2.9%
합계	173	100.0%



이와 같은 변화를 청년여성 노동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 때문에 생긴 건강 문제가 일자리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매우 큰 영향을 미침~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로 묻은 결과, 88.4%(153명)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50.9%(88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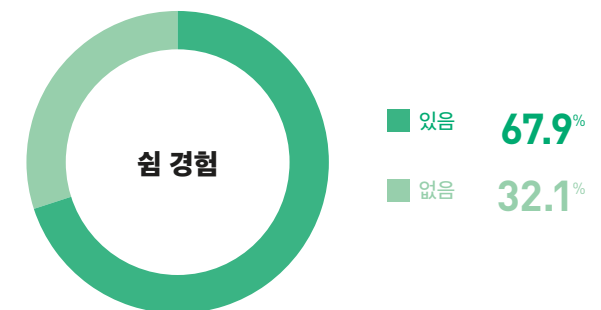
건강 문제가 일자리 변화에 미친 영향	전체	
	인원	비율
전혀 영향이 없음	6	3.5%
적은 영향	14	8.1%
큰 영향	65	37.6%
매우 큰 영향	88	50.9%
합계	173	100.0%

건강 문제가 노동 및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관식으로 답해달라고 했을 때, 많은 지원 대상자가 건강 문제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업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짐', '통증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업무가 많이 생김', '몰타임으로 일하는 게 힘들어 프리랜서로 단기 알바 중', '몸을 쓰는 일을 못하겠다',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 등 직업적인 측면을 넘어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경험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립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건강 문제가 일자리 변화에 적은 영향만을 미쳤거나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답한 20명의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기력함으로 이직과 사회생활 이 힘들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업무를 한다', '반 년 넘게 일하지 못함', '기존에는 앉아서 일했는데 이젠 힘들다' 등 이들 역시 건강 문제에서 기인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청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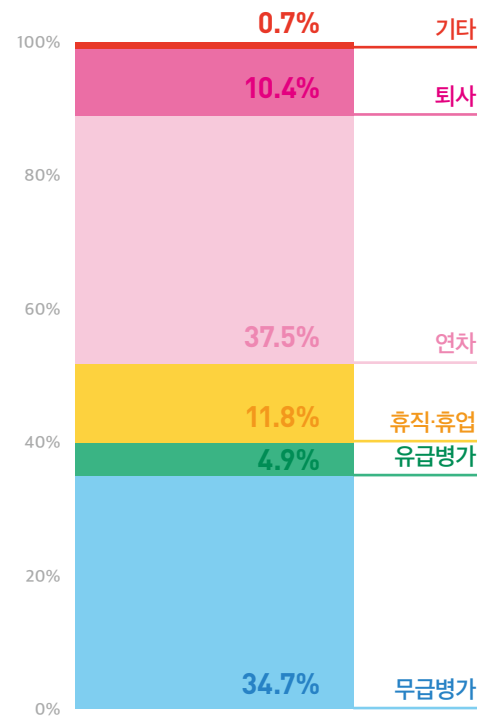
사회초년생인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추후 노동 이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항목 중 '심 경험' 응답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모든 노동 경력을 통틀어서, 아플 때 쉬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32.1%(68명)가 '없음'이라고 답했다. 청년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셈이다.

심 경험	전체	
	인원	비율
있음	144	67.9%
없음	68	32.1%
합계	2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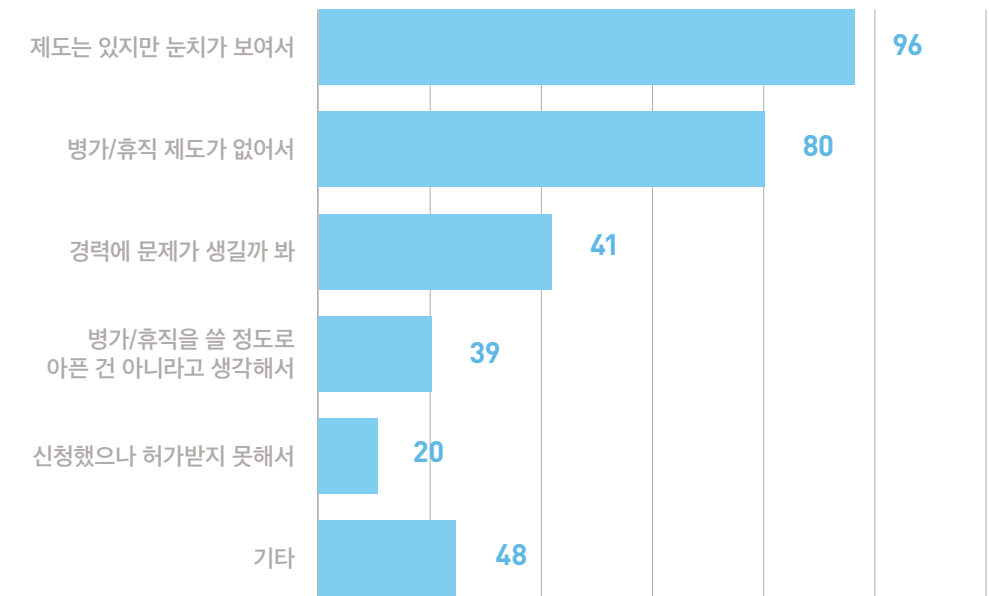


쉬어본 적이 있다는 67.9%(144명)의 응답자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쉬었는지 확인해보았다.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개인 연차’였다. 37.5%(54명)가 아플 때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 ‘무급 병가’가 34.7%(50명)로 뒤를 이었다. ‘유급 병가’를 썼다는 사람은 4.9%(7명)뿐이었다. 아예 ‘휴직’했다는 사람이 11.8%(17명), 퇴사하거나 폐업했다고 답한 경우가 10.4%(15명)로 유급병가를 사용했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주로 어떤 형태로 일을 쉬었나요?	전체	
	인원	비율
무급병가	50	34.7%
유급병가	7	4.9%
휴직·휴업	17	11.8%
개인 연차 소진	54	37.5%
퇴사·폐업	15	10.4%
기타	1	0.7%
합계	144	100.0%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퇴사·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했다.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을 확인해보니, ‘병가·휴직 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212명 중 45.3%(96명)였다. 아예 ‘병가·휴직 제도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37.7%(80명)에 달했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서’가 많았다. 한편, ‘병가·휴직을 사용할 만큼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를 꼽은 사람은 18.4%(39명)였다. 사회 제도나 회사가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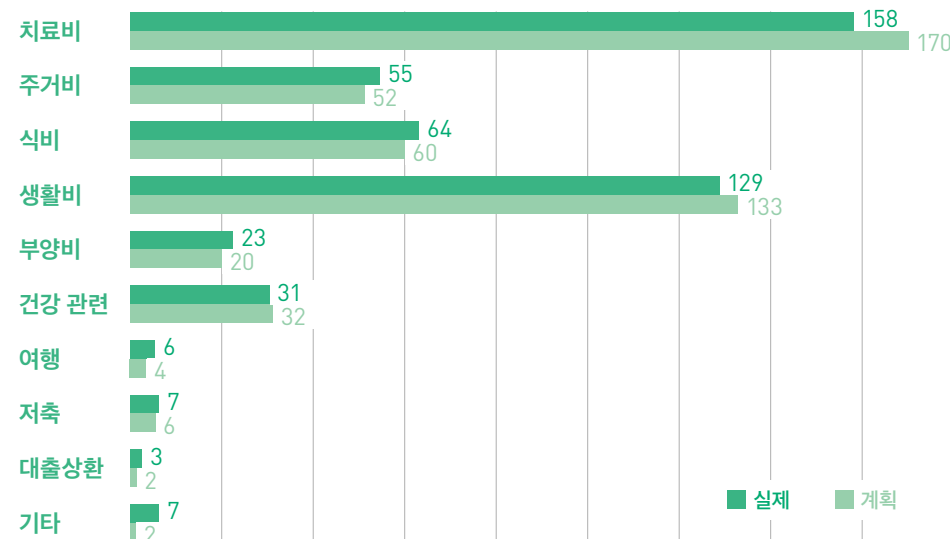


병가/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중복응답)	전체	
	응답수	비율
병가/휴직 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96	45.3%
병가/휴직 제도가 없어서	80	37.7%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	41	19.3%
병가/휴직을 쓸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39	18.4%
병가/휴직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해서	20	9.4%
기타	48	22.6%
합계	324	

3. 회복지원금 지출 상위 항목

본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산재회복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를 제한 하지 않고, 본인의 회복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설문에서 지원금을 실제로 지출한 항목에 모두 표기해달라고 한 결과, 치료비 항목이 212명 중 74.5%(158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60.8%(129명), 식비 30.2%(64명), 주거비 25.9%(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치료비·생활비·식비·주거비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위에서 병가/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기타 이유 중 '소득이 줄어들어서'가 다수 꼽혔던 사실과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청년여성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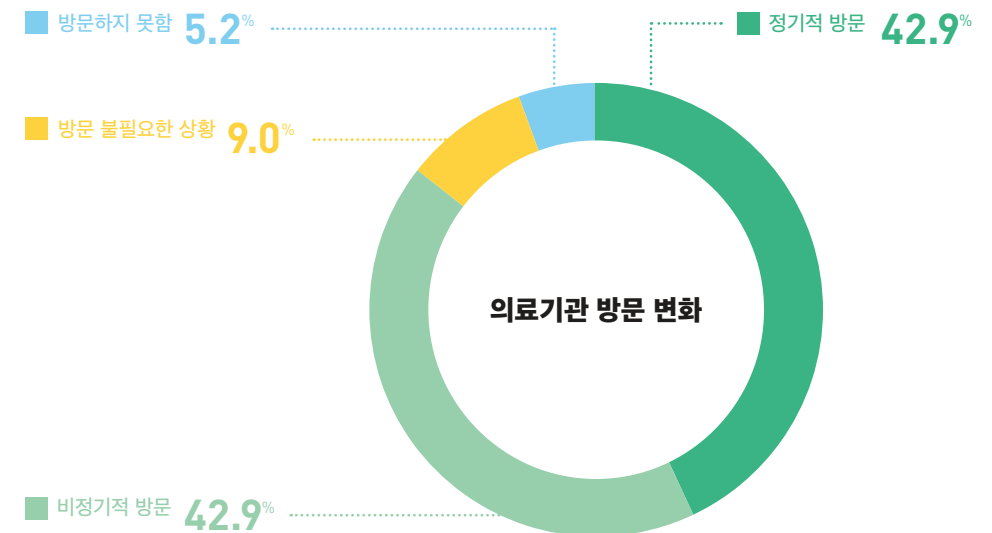
지출항목(복수 응답)	계획		실제지출	
치료비	170	80.2%	158	74.5%
주거비(전월세, 대출 이자 등)	52	24.5%	55	25.9%
식비	60	28.3%	64	30.2%
생활비(주거비와 식비 제외)	133	62.7%	129	60.8%
부양비	20	9.4%	23	10.8%
건강 관련 지출	32	15.1%	31	14.6%
여행	4	1.9%	6	2.8%
저축	6	2.8%	7	3.3%
대출상환	2	0.9%	3	1.4%
기타	2	0.9%	7	3.3%



4. 회복 관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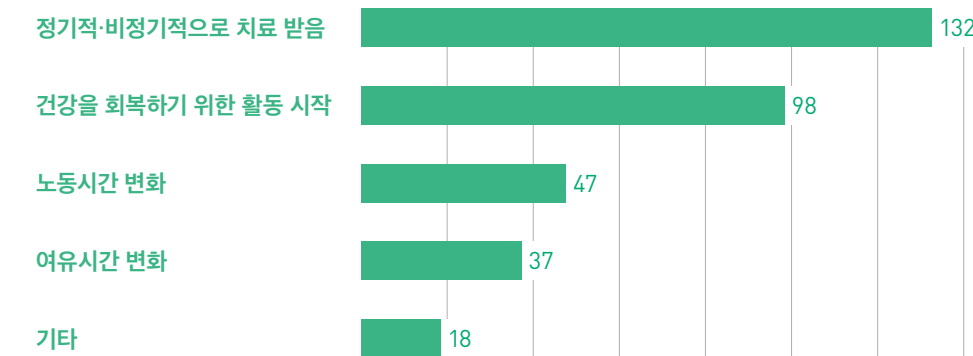
지원사업 이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회복 관련 변화였다. 지원금 지급 이후 치료 상황을 물었을 때, 212명 중 85.8%(182명)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다닌 사람이 42.9%(91명), 비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다닌 사람이 42.9%(91명)였다. 한편, 5.2%(11명)는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변화	인원	비율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91	42.9%
비정기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91	42.9%
안치/유지 중이라 의료기관 방문 불필요	19	9.0%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음	11	5.2%
합계	212	100.0%



의료기관 방문 이외의 회복 관련 변화도 확인되었다. 212명 가운데 46.2%(98명)는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시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람이 22.2%(47명)로, 이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걸 걱정해서 몸이 아픈데도 평상시처럼 일하다가 지원금을 받은 뒤에야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여유시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람은 17.5%(37명)였다. 돌봄 부담이 있는 청년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여 짧게나마 돌봄 기관·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 휴식·자기 계발에 필요한 여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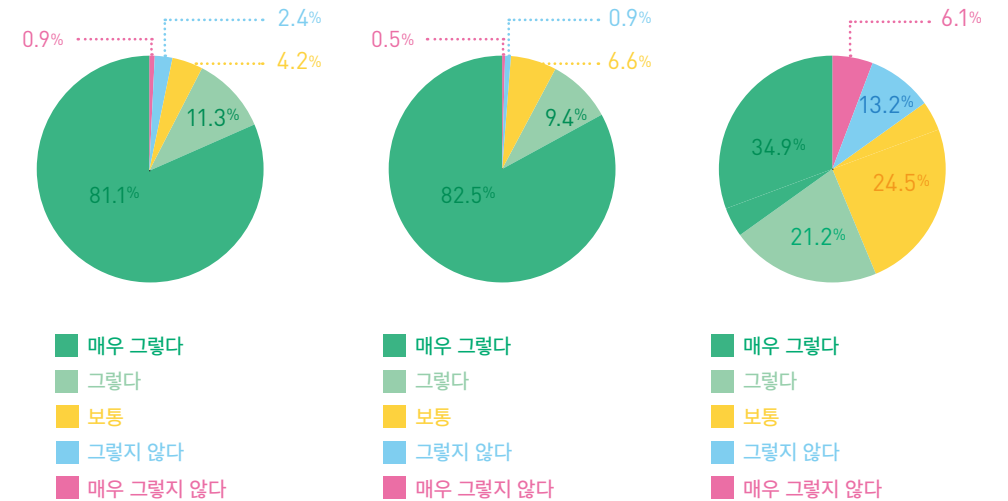
회복 관련 변화(복수 응답)	인원	비율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치료 받음	132	62.3%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 시작	98	46.2%
노동시간 변화	47	22.2%
여유시간 변화	37	17.5%
기타	18	8.5%
합계	332	-



5. 지원사업 만족도

지원 대상자인 청년여성 노동자가 생각한 본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증빙서류·처리 기간·지원금 규모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했다. 지원사업 첫해였던 2022년부터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이 유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는 구글 신청서 양식만 작성하도록 했고, 증빙서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만 제출하게 했다. 증빙서류의 종류는 진단서 등 병원 서류(병명 확인)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소득 확인) 두 가지로 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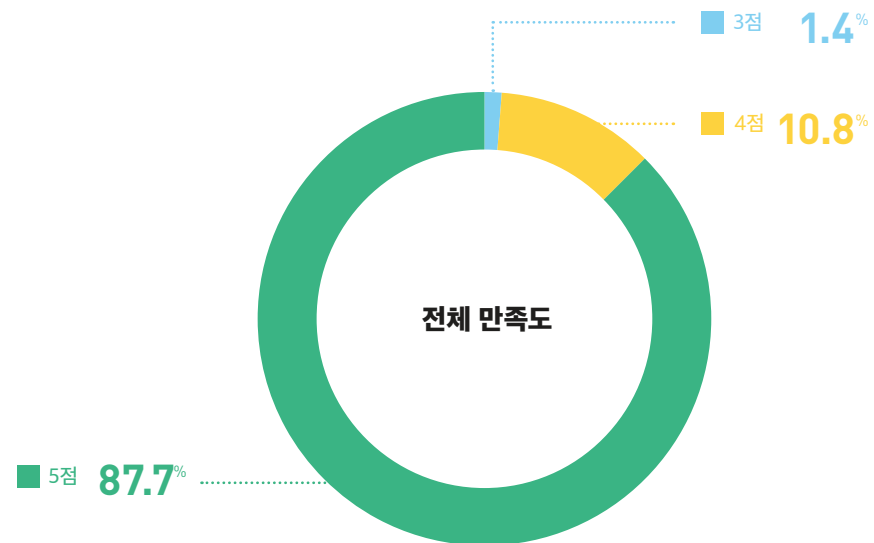
서류제출이 문턱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212명 중 92.4%(196명)가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적당했다고 평가했다. 처리 기간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였고,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뒤 지원금 지급까지 가능한 7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212명 중 91.9%(195명)가 처리 기간이 적당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규모 측면에서는 한 사람당 1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는데, '계획했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사람이 56.1%(119명),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24.5%(52명)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른 항목에 견주었을 때 지원금 규모 관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지원 대상자 중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이 아니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적당했나요?			처리 기간이 적당했나요?			지원금이 계획했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나요?		
5	172	81.1%	5	175	82.5%	5	74	34.9%
4	24	11.3%	4	20	9.4%	4	45	21.2%
3	9	4.2%	3	14	6.6%	3	52	24.5%
2	5	2.4%	2	2	0.9%	2	28	13.2%
1	2	0.9%	1	1	0.5%	1	13	6.1%
합계	212	100.0%	합계	212	100.0%	합계	212	100.0%

상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본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묻은 결과, 212명 중 98.5%(209명)가 5점 척도에서 4점(만족) 이상을 부여했다. 만점인 5점(매우 만족)을 부여한 청년여성 노동자는 87.7%(186명)에 달한다. 본 지원사업이 절차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변화 도모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부에서 상병수당·유급병가 같은 제도를 시행하거나 민간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증빙서류를 최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생계 보장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만족도		
5	186	87.7%
4	23	10.8%
3	3	1.4%
2	-	-
1	-	-
합계	212	100.0%



IV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 노동자

1

심층인터뷰 총괄 분석

2

여성의 눈으로 읽어 본 산업안전보건법

3

네트워크 모임

IV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 노동자

III 심층인터뷰 총괄 분석

심층인터뷰는 매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 이후 1~3개월 이내에 수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첫째, 일터에서 어떠한 직업병과 재해를 얻었는지, 둘째,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치료해 왔는지, 셋째, 지원금 지급 이후 건강과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최종 지원 대상자 중 노동 경력과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 등 건강 문제 유형, 산재보험 이용 여부, 지역, 학력 등에 따라 목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면접 대상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총 39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하였다.

1. 청년여성의 직업병과 재해 경험

①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본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신청자, 지원 대상자, 면접참여자들이 자신의 직업 건강 문제로 가장 많이 응답한 병이다. 지원 대상자 중 근골격계 질환 1개 이상을 명시한 이는 2022년 66%(33명), 2023년 56.7%(34명), 2024년 58.2%(32명), 2025년 56.4%(31명)로, 전체 지원 대상자 220명 중 59.1%(130명)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청년 여성들은 각기 다른 산업에서 일하였지만,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 작업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로 인해 손과 손목, 발과 발목,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통증뿐 아니라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 손상을 보고한다. 심층인터뷰에서 만난 이들은 “청년 여성은 고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에 맞서, 장시간 노동,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거나,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요리사

(주방에) 남자가 진짜 많아요. 완전 남초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집에서 밥은 여자가 하는데 밖에서 요리사는 다 남자가 하고. (웃음) 다 남자분이시고, 보통 그래서 주방 작업대나 조리대나 이런 것도 남자분들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키가 유독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 뭔가 할 때 더 올려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깨가 더 아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식업·서비스업·교육업·사회복지업 등 여성 종사자가 많은 분야에서 이들은 고객 응대라는 감정 노동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접시를 옮기거나 와인을 포장하고, 판매용 물류를 주기적으로 운반·분류하는 등 빠르고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과소평가되었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군의 업무와 그 건강 영향에 대한 저평가는 해당 노동이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 일”로 여겨지게 했고, 이는 노동강도에 비해 인력과 휴식이 부족한 현실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할수록 신체적 통증과 손상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스타일리스트

아무래도 제일 힘든 건 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썬에서 한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벌을 위해서 최소 네 벌은 나와야 하거든요. (중략) 예를 들어서 화보촬영을 간다고 하면, 짐을 캐리어에 싣거나 큰 행랑에 싣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캐리어를 이고 지고 가서 올리고, 다시 정리하고 내리고, 다시 사무실로 가져와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 몸이 안 아프면 이상한 것 같아요.

빵집 판매 및 포장 직원

사람이 엄청 많고, 빵이 싸다 보니까 무례한 사람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너무 일이 많았어요. 주방에 (조리사로) 있을 땐 손목이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빵집 일하면서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 중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상황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빵 포장도 빨리빨리 해야 하고, 계산할 때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손목이 아팠던 것 같아요.

② 신체 질환

- 무월경
- 온열질환
- 피부병
- 화상

몇몇 여성들은 피부질환, 화상 등 업무상 질환임에도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였다. 이들은 작업장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안전장비나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비교적 안전한 일터에서 일한다라는 젠더 편견으로 인해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필라테스 강사

회원들을 남자분들도 받쳐드려야 하니까 ... 필라테스랑 같이 헤드렸거든요. 근데 유연성이 없으신 분이 많으니까, 그 무게를 제가 받칠 때가 많아서 그때도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쨌든 뭔가 무거운 걸 드는 게 많고, 청소도 직원을 시키더라고요. 샤워장 청소까지 다 하니 몸이 아픈 게 느껴져서. 그 무렵에 차에 타려고 몸을 굽혔는데 갑자기 다리가 탁 풀리면서 못 걷겠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카페 직원

물류 정리할 때는 젤라또 5kg짜리 바트가 한 번에 40개에서 70-80개 정도 들어와요. 음료 컵도 있고, 뚜껑, 홀더, 티슈, 숟가락도 들어와요. 크로플을 파니까 칼도 있어요. 젤라또에 먼저 안 들어가게 덮어놓는 유산지도 있어요. 캔 음료나 유리병 음료도 혼자서 다 나르고요. (중략) 음료도 다 만들고, 젤라또도 혼자 푸고, 크로플도 혼자 굽고. 식재료도 냉창고에서 날짜 확인하고 폐기 하거나 (새로) 시키거나 ... 재고 확인도 제가 하고요. 왜냐면 매니저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미리 해두는 거죠.

제과제빵/사무직

졸업하고 사무직 하다가 제과제빵으로 틀었어요. 사무직 할 땐 (손목이) 터널증후군 수준이었는데 제과-제빵 하면서 매일 10-20kg를 들고 나르니까 염증이 터지고 확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 뒀어요. (손목이) 나을 때까지는 그쪽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돈은 벌어야 하니까 지금도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긴 해요. 경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제과-제빵 쪽으로 가려면 (손목) 관리를 해 봐야 해요.

요식업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청소용액에 노출되어 바지가 녹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으나, 치료는 습윤 밴드를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해당 일터에서 근무할 때마다 피부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 미용사로 일한 또 다른 여성은 각종 약품에 꾸준히 노출되어 매년 겨울마다 접촉성 피부염에 시달렸으며, 6년간 네일리스트로 일한 여성은 간지럼증에서 시작해 한포진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염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핫도그 매장에서 홀로 일한 청년 여성의 경우, 뜨거운 기름을 다루는 과정에서 화상을 자주 입었지만, 고용주는 이를 개인의 부주의로만 간주하였다. 그 결과 보호구 지급이나 인력 총원 등 구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부상은 오히려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식당 을서빙

진짜 너무했던 게 제가 젊으니까 나중엔 아예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바닥 청소를 혼자 했어요. 처음 했을 때 무릎을 날렸고. (중략) 바지가 녹았어요. 녹았다고 해야 하나? (무릎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사진을 찍어놔던 것 같은데. 너무 따가워서 ‘워지?’ 하다가 탈의실 가서 바지를 벗었더니 살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메디폼 붙이고 출근하고. 그냥 ... 저도 좀 잘못된 게, 아파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 다음날 그냥 출근하고.

네일리스트

간혹 원장님들 중에 (젤을) 팔레트에 덜어야 하는데 바쁘시니까 그냥 여기 (손등에다) 덜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래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러지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략) 아세톤도 되게 강해서. 일반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이 아니고 완전 100% 아세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맨손으로 아세톤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손가락에) 묻으니까. 이 아세톤에 플라스틱이 녹거든요. 되게 강한 거라서. (기구들도) 알코올로 다 소독해서 닦고, 그러고서 소독기에 넣어놓고.

미용사

아토피는 지금 있어서 겨울에는 (손이) 다 찢어지고 올라와요. 건조하면 다 올라와요. 너무 심하면 약국 가서 약 바르는데, 약을 발라도 계속 물에 닿고 약품에 닿으면 (똑같이) 그래서 ... 장갑을 끼라고 하는데 제가 장갑을 꺼도 (아토피가) 올라오거든요. 라텍스 때문에 ... 그래서 그냥 약 바르고 버텨요.

핫도그 가게 제조 및 판매직

데이기도 많이 데이고. 다행히 흉터가 잘 안 남는 타입이긴 한데, (팔에) 좀 남아있는 게 다 화상 자국이긴 해요. 제가 쪽 기름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기름에 들어가면 바로 안 뜨겁거든요. 기름이 될 땐 바로 따갑다고 하는데, 손을 담그면 뜨거운 줄을 몰라요. 핫도그를 말아서 넣잖아요. 빨리하다 보면 손을 담글 수 있거든요. 담그면 한 1-2초 있으면 뜨거운 게 올라오거든요. 바로 씻으면 화상을 안 입는데, 모르고 일을 하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뜨거운 거에 내성이 생겨서 뜨거운 걸 잘 못 느껴요. 남들이 뜨겁다는 걸 잘 만져요. 공기밥 그런 거 (웃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물류센터 일용직

냉난방 기구가 없어요. 에어컨이나 히터 절대 없고요. 그냥 여름에 얼음물 주고 겨울에 핫팩 주는 정도. 겨울은 그래도 끼입으면 괜찮은데 여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더운 채로 다녀요. 주간(근무)할 때 엄청 더 덥더라고요.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어지러워서 이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무실에 갔었어요. 잠깐 쉬고, 조퇴하면 돈 못 받을까 봐 다시 현장으로 ...

텔레마케터

스트레스가 완전 압축이 되어서 ... 갑자기 얼굴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전에 아플 땐) 집에서 맨바닥에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갈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서 타이레놀 먹고. 병원비가 한 번 가면 몇천 원 나오는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타이레놀 먹고 회사에 갔었어요. 근데 얼굴 딱 돌아가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중략) 제가 주말에도 영업 관련된 걸 따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 출근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고, 출근하는 날은 맨날 목이 졸리는 기분이 많이 들었고요. (수습) 3개월은 다 되어가는데 매출액을 못 채웠으니까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

시민단체 활동가

살이 갑자기 찌고, 출퇴근하는 게 어려울 정도. 발달했는데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바닥에 누워있거나, 3시간을 누워있어야 겨우 씻을 정도. 면역력도 너무 떨어져서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방광염부터 시작해서 비염 ...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궁 검사도 하고 난소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 피검사도 이상소견 없다. 근데 저는 몸이 망가지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

이 밖에도 안면신경마비, 무월경, 온열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이 보고되었다. 한 청년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인터뷰 당시인 2024년 여름 낮에 일하다 더위로 인하여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고 느꼈다.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의무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추가적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한다.

텔레마케터로 일한 청년 여성은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심하여 안면신경마비에 걸렸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실한 영양으로 병세가 악화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한 청년 여성은 방광염, 비염, 무월경 등 “몸이 망가졌다”고 회상한다. 이들 대부분은 유급병가가 없는 일터에서 일하였고, 아파도 치료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일해야 했다. 그 결과 몸이 더욱 나빠져 기존 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정신 질환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 지난 4년간 일터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질환 산재가 2015년 46건에서 2025년 271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사회적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정신질환이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도서관 기간제 사서

공공도서관은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어떤 친구가 대출 카드를 챙겨와야 하는데 안 챙겨와서, (카드를) 가져오면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가 찾아와서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 제가 나가고 새로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나갔어요. 제가 오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어른들끼리도 왕따를 시키더라구요. 개인적인 심부름도 되게 많이 시키고. 계약서 상에는 행정업무나 이런 것만 시켜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전용 계란을 가져오라고 하고. 방식 같은 것도 세탁시키고. 참고 마지막 날까지 일했는데, 거기 CCTV가 없단 말이에요. 벽으로 (저를) 밀치더라고요 …. (눈물) 다른 분들 지나 가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 혼자 울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울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고, 맨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두 달에 한 번 (밖에) 나갈 때도 있었고. 6개월에 한 번 나갈 때도 있었고.

카페·편의점 노동자

그때 이후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되게 심해져서 그 뒤로는 친구가 (일을) 소개해줘서 가거나, '같이 알바 하는 사람의 친구니까 나한테 엄청 그러진 않겠다' 이게 좀 보장된 곳에 가서 (일했어요). □□ 카페에서도 3개월 일하고, ○○ 근처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 5개월 정도 (알바로) 일하고, 정말 힘들 때는 쉬었어요. (중략)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웃음) 거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욕설, 폭언, 폭행, 위협 등을 경험하며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노동자 개인의 대응 부족으로 치부되었고, 사업주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이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태로 계속 일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청년 여성들은 정신적 유해·위험요인에 상시 노출된 채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 여성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노동 현실을 마주하면서, 가능한 나은 노동 환경을 찾고 불합리한 조건을 피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조치가 없어, 심리·사회적 위험에 지속하여 노출된 채 일해야 했다.

둘째, 청년 여성들은 과도한 감정노동뿐 아니라 상사와 동료 간 위계적 조직 문화로 인한 적응 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한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업무 지시나 교육을 빙자한 언어폭력, 동료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계속 일하며 우울증, 적응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 직장 내 부당한 대우와 위계적 문화에 대해 고용주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점은 이들의 정서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무직으로 일하던 한 청년 여성은 사과문 및 징계로 사건이 처리될 줄 알았지만, 가해자는 몇 달 뒤 승진하여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며 분개하였다. 사업주가 성희롱에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일터에서 불안,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청년 여성은 잦은 야간 노동, 저임금, "싼 인력"이라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저평가, 상사의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사무직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꺼안으신 거예요. 이런 가슴 같은 데가 닿잖아요. 그때 터진 것 같아요. 뒤에서 안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몇 명은 봤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만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말로는 사과문 올라오고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가해자가) 월급도 더 받고 더 승승장구하고. (중략) 성추행 사건으로 좀 회사가 뒤집혔었어요. 한 2년 지나서 한 명이 은근슬쩍 저한테 또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불편하다 얘기했죠. "그런 일 있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 오래 봐서 편해져서 그랬다" 전형적인 멘트 있잖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썩었어요.

콜센터 기술상담원

고객이 회사에 얘기하지만 듣는 건 저잖아요. “통신사 *발음”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기술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고, 일단 그 전화가 마무리됐어요. 욕설 2회이면 30분 휴식한다고 규칙으로 있는데,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쉬기가 ... 실장이 싫어했어요. 나중에 말했을 때 “그런 걸로 힘들면 이 일 어떻게 해요? 일 계속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서든 회사든 응대하는 자침이 다 있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고,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게임회사 개발자

너무 일이 많았어요.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하고. (분담해야 하는 건데 혼자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퇴근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중략) 사수님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 괴롭혔죠. 회사는 애가 신고할까 봐 약간 달래는 용도로 “힘들었겠다” 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어줘요. 근데 결과를 안 내는 거예요. 처음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도 되는데, 그러면 3자대면 하시는 거 알죠? 견디실 수 있겠어요?” (라고). 당시에는 엄두도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신고 안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돌아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협박이었구나 ...

셋째, 고객과 상사의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보고 된다. 여성들은 직장 동료나 상사, 고객과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해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기도 하였다. 카페에서 일하던 한 청년 여성은 고객을 응대하며, 매일 같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겪어 일을 그만두었다. 퇴사 이후 매니저는 ‘그 고객이 너의 연락처를 물었다’라며 안부를 걱정하는 연락을 하였다. 청년 여성은 매니저 역시 고객의 성희롱과 스토킹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하였다. 언론사에서 일하던 청년 여성은 실습과 인턴 기회가 사라질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고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야기한다.

언론사 인턴

밥을 먹으면 ‘여자랑 먹으니까 역시 밥맛이 좋다’, ‘네 목소리가 너무 sexy해서 너 여기 가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런 식). 화내고 정색했어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했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한편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학교랑 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제가 분란을 만들면 후배들이 실습할 기회를 뺏길까 봐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수영강사

여자 선생님은 저 혼자이고, 남자 선생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담배도 권유하시고. 회식 때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술만 드시면 자자, 잠자리를 갖자고 ... 그걸 못 이겨서 퇴사했죠. 너무 힘들어서.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었다. 약간 이상한 분이 오셨었어요. 매일 매일. 남자분이셨는데, 나이대는 서른 초중반? 얼굴을 가까이해서 이 메뉴 저 메뉴 물어보고, 매번 결제한다고 카드 줄 때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서 ... 그때는 20살이었고,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였는데 ... 갑자기 그렇게 잡으니까 너무 놀라서 카드를 떨어뜨렸거든요. 다음날에 또 오시고, 매번 (결제할 때마다) 손잡고, 진짜 신고하고 싶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참았거든요. (중략) 아직도 뒤에서 누가 오면 흠칫 놀라거든요. 혹시 그 사람인가 해서 놀라고, 당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단체로 길 걸어가길 때 제가 무조건 맨 뒤에서 걸어요.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한 청년 여성을 향한 2차 가해 역시 보고되었다. 스포츠 강사로 일한 청년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처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고용주와 가해자, 피해자들이 3자 대면하는 과정에 직장 상사인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말들을 직장 안팎으로 퍼뜨렸다. 그녀는 매일 울고, 자해할 정도로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피하고 싶지 않아” 직장을 다니며 다른 피해자들과 고소를 진행 중이다.

스포츠센터 강사

저는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았고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더 발악하더라고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세 명한테나 그랬던 건데. (중략) 제가 진술서 쓰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이미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한 게 많았고, 그래서 자해도 했었고 ... 저도 회사를 나오면 그만이었는데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피하는 방법밖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여기서 처리하고 배워가야겠다, ‘마음이 단단해지겠지’하고 그냥 버틴 거죠.

제조업 엔지니어 및 물류

여자 혼자 할만한 일을 찾았던 건데,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도 똑같은 거 같아요. 좋아졌다는 건 표면적인 거고. 회사 자체도 무슨 일 있어서 신고해도, 신고해봤자 나인 걸 다 알잖아요. 뭘 할 수도 없죠. (중략) 관리직은 다 남자예요. 여자는 못 올라갑니다. (제조업 관리자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나요?) 성희롱 많아요. 여전하죠. 사무직은 신고 엄청 했어요. 술 먹고 만졌다더라 신고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원래 신고하면 회사가 피해자 편이어야 하는데, 회사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최대한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걸 회사가 얘기합니다.

사무직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정신과에 찾아갔죠. 테스트하는 서류를 주더라고요. 받아와서도 망설였어요. ‘진짜 우울증이면 어떡하지?’ 싶어서요. 그땐 우울증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져서. 할까 말까 하다가 다 작성해서 가져갔더니 우울증 판정을 받아서 약을 받아왔죠.

2. 청년여성의 산재보상제도 이용 경험

① 산재 신청 경험

지원사업 신청자 및 지원 대상자를 통틀어 산재보상제도에 포괄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산재보상을 신청한 청년 여성들은 고용주의 도움이나 무료법률 지원 등이 있었기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즉 산재보상제도 이용은 법률적·행정적 자원 접근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자원이 부재했다면 산재 신청은 회피되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산재 승인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픈 몸으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토로한다. 한 참여자는 사업주의 권유와 지지, 의료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엄청 까다로운 것”같다며 복잡한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말했다.

애견유치원 교사

저는 수급자여서 그나마 나아요. 무료법률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막 200만 원 이라는 거예요. 일반 벌이하시는 분들이, 잘려서 직장도 없는데, 200-3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길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보통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재보상) 액수가 엄청나지 않은 이상 진행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 직장을 새로 구하면서 진행하기는 힘드니까.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엄청 많고.

요리사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소견서를 다 써주시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의사분이 또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증상을 처음 느낀 건 (무거운 걸) 들다가 미끄러지면서 (손목을) 삐끗했을 때라 사고로 신청했거든요. ‘건초염은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지 사고랑은 다르다’라고 해서 거절이 됐어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도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산재 신청했던 병원에서 담당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방금 조회해봤는데 승인이 안 났고, 사유가 이렇게 적혀있다고. (중략) 건초염은 (산재 승인이) 안 나온다고, 되게 애매한 질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집안일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면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한 건가요?) 네. 병원에서도 들었고, 인터넷에 후기 같은 거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산재는 너무 복잡하고, 계속 서류 내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 (산재 승인 되어서) 3개월 치료받고 더 치료가 필요하면 또 서류를 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목소리도 안 나와서 전화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 '그러면 와라' 그러는데 그냥 3개월만 치료받고 (연장) 신청 안 했어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갈등은 산재를 신청했거나 산재 신청을 고려하였던 청년 여성들에게 보고되는데, 이들은 업무상 부상과 수술 등으로 퇴사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산재보상 신청을 철회하라는 압박 또는 협박을 받았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한 두 여성 참여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 사람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던 중 업무상 부상으로 디스크가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 휴식을 요청하자 헬스장 대표는 "회원들이 그만두니 신고하겠다. 환불 비용을 다 보상해라"라는 식의 협박성 전화와 카톡을 계속 했다. 이 참여자는 "몸도 안 좋은 상태인데 마음까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계속된 협박에 불안을 느껴 법률 상담을 하고, 이력서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로 대표가 찾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이사하였다. 무섭고 불안했지만, "책임감 있게 살아왔던" 나를 부정하고 모멸하는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져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다른 한 사람은 애견유치원에서 근무 중 미끄러짐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대체 인력을 빨리 뽑아 치료를 지원해주겠다던 고용주는 수술 후 태도를 바꾸었다. 고용 관계를 부정하며 본인 과실로 다친 것이니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참여자는 공공기관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년 여성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인격모멸적 언사가 제도 접근의 정서적 장벽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 그게 트리거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나 같은 애를 모르시는구나. 나 같은 애가 얼마나 독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던 친구들도 많았고, 고시원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언니들도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살아왔던 아르바이트 인생이나 이런 것 속에서 노동청 이런 정보를 많이 습득한 거거든요. 그걸로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온 곳에 다 신고한 거예요.

③ 산재보상제도 미이용 경험과 접근성 문제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산업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지원사업에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여성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직업성 질환 혹은 산업재해로 정의하게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청년 여성 개인의 노동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 여성의 산재 인식은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지원사업 포스터를 보고) '이거 내 얘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해당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재를 산재라고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통화하면서 혹시 산재신청 할 생각은 없으셨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산재가 되나요?" 이렇게. 저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상만 생각했었고, 산재는 뭔가 투쟁해야 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일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재 신청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손목 건초염이 와서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 맞고, 충격과 치료 받았거든요. 그런 거랑 손목 아픈 거나 허리디스크가 되게 많아요. 허리디스크가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알아봤는데 기준이 있대요. 몇 kg 이상 중량을 몇 번 이상 들었을 때? 근데 제가 중량은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본다.

속기사/와인판매직

처음에 점장님도 산재 얘기를 했었어요. '산재 처리 네가 원하면 해줄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가 바뀐 게 일단 과정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네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게 아니어서 될지 모르겠다' ... (중략) 어쨌든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죠.

일부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질병과 부상이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산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산재보상제도의 신청 절차가 과거보다 간소화되었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이고, 노동자는 여전히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용어로 어려움을 느껴 진입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시관 해설 업무를 한 청년 여성의 경험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원사업 신청 이후, 그는 산재 관련 기사와 신청 절차를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받은 안전교육이 작업장 위험요인과 개인의 예방책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 즉 산재 발생 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정보 접근성의 결핍이 단순한 개인의 무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전시·행사 안내원

(지원사업 신청하고) 산재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도 막상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 기사 인터뷰를 보다가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단어들에 막혀서, 절차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일하면서 중간에 안전교육을 받잖아요. 약간 형식적인 게 좀 많고, 그냥 사진 찍고 “이거 나머지 읽어보세요”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산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하게 그냥 제 건강 문제고 회사에서 뭔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요리사

지금 있는 직장에서 (손 가리키며) 이것도 그렇고, 일하다가 다친 거거든요.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법카 들고 가서 ‘영수증 들고 와라’ 이렇게. 택시도 타고 가고. (다친 거 말고 어깨나 손목 아프고 그런 건요?) ‘그건 네 일이다’ (웃음) 제가 지금 앓고 있는 건 직업병인 거잖아요.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직업병인 걸로 취급하는 거니까.

청년 여성들은 산재보험제도 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과 노력의 부담에 비해 승인될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 즉 인지된 낮은 실효성을 이야기한다. 제도를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동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뿐 아니라,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노동환경이라는 구조적 배제 경험과 맞물려 있다.

청년 여성들은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 문화를 지적하는데, 업무상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몇몇 여성들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여도, 마우스패드 등 개인의 자기 관리를 통해 해결하라는 말을 들은 경험을 말하며, 업무 강도·휴게시간 등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방책을 회피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문제가 개인의 자기 관리 능력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직업 건강 문제가 일터에서 자기관리 담론으로 전유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부 참여자들은 산재 신청 시 상사의 보복성 불이익을 우려하였다.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는 한 청년 여성은 산재보상을 요구한 동료들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근무 일정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에, 산재를 신청하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무직/콜센터 노동자

‘목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하면, ‘어 나도 아파’라고 하시니까 ‘그럼 마우스 패드를 좋은 거 써’, ‘손목에(아대) 하거나 허리 딱 쿠션 받치고 해’라고 하셨어요. ‘다 아픈 거지’ 이러시면서.

호텔 프런트 직원

진짜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산재)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미쳤냐고 할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 그래서 단 한 번도 여쭙볼 생각도 안 했고요. ‘이건 당연한 거다, 옛날엔 더 심했다’ 그런 느낌. (의료비) 돈 진짜 많이 썼어요.

프랜차이즈 식당 노동자

산재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라서 불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안 하시려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니까. 그리고 스케줄 매니저가 있어요. 매출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문제를 자주 일으킨 사람과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5일 (일하기를) 원해도 3일만 넣어주는 식 이니까 다들 눈치 보고.

3. 청년여성 직업 건강의 취약 요인

① 구조적 취약성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의 노동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취약성(structural vulnerability)이다. 구조적 취약성은 개인의 위험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된 제도적·정치적·경제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젠더, 고용 형태가 교차하여 다층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한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성과 복수직업 종사(multiple job holding)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고,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한다. 복수직업 종사란, 하나의 일자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추가 소득·경력·경험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동시에 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흔히 'N잡러'는 본업 외에도 부업 및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라 여겨지지만, 이들은 동시에 2-3 가지 아르바이트 혹은 정규일자리에서 일하며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이러한 복수직업 종사는 단순한 '부업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노동유연화·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혹은 고등학교 졸업 시기부터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여성들은 전단 배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패밀리레스토랑·카페·와인샵·패스트푸드 홀서빙, 학원 강사, 전시관 해설사, 물류업 배송·포장·집하, 청소, 장애인활동지원, 콜센터, 단역 배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한다. 대부분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되어 있으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계유지라는 구조적 강제에 기인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은 예기치 않은 계약 종료로 인한 수입 감소의 불안을 낳고,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게 만든다. 또한 작업장 간 이동 시간, 휴식 부족, 학업과 경력 형성의 병행 등은 이들의 일상에 과중한 부담을 더한다. 따라서 복수직업 종사는 청년 여성들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동 미술학원 강사

일 경험은 조금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20살 이후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서 ... 일단 기본적으로 서빙 알바는 식당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이런 데서 하고, 베이비 피어 같은 데에서 알바도 하고, 카페에서도 꽤 오래 일했었고, 박물관 전시 스태프, 교수님들 강의하는 데 보조 강사 들어가고, 전화 안내하는 알바도 하고, 대략 이 정도 있어요. 알바하면서도 틈나면 (다른) 알바하고, 제가 예술계열 학과라서 재료비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해서 알바를 많이 했어요.

숙기사/와인판매직

숙기 프리랜서 일이 맨날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 근처에 있는 와인 가게에서 고정 수익을 만들려고 일하게 되었어요. 억울했던 거는 면접 볼 때는 이런 업무가 있다는 걸 못 들었어요. 와인 추천을 해주면 된다 해서 왔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이만큼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에 염증이 여기까지 퍼져서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병원에서는 “이쪽 팔이 지금 난리가 났다. 어쩌다 그랬냐, 이 지경 될 정도로 뭘 한 거냐”라고.

저임금·주변화된 일자리에서 일하던 청년 여성은 “목돈을 벌고자” 대규모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었다. 이전 일자리보다 월소득은 높아졌지만, 하루 12시간 근무와 주야교대제를 고려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여성은 에어컨 모터 조립 라인에서 일하였는데, 주야 2교대와 장시간 노동, 하루 1~2천 개의 부품 조립과 검수, 무거운 모터 취급 등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목터널 증후군, 근골격계 질환, 심리적 소진 등을 겪었고, 휴식·회복 시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였다. 파견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 근무 시간을 협상할 수 없었다. 계절에 따른 생산량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상존했다. 이러한 조건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녀는 몇 달 “빡세게 일하면 일한만큼 쉬어야 한다”라고 회고하며, “교훈”을 얻었다고 표현한다.

에어컨 공장 생산직

힘들어도 대공장을 가볼까 싶어서 공장에 들어갔어요. 에어컨 모터 만드는 라인에 들어가서 일했었어요. 그때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30일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완전 소진이 되어서 ... 진짜 코피 흘러가면서 일하고, 주야 2교대로 일했어요. 에어컨 일은 가을쯤 끝나요. 발주가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때 라인에 있는 비정규직, 파견직들을 다 잘라요. 저는 어쨌든 파견직으로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파견업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저도 끝난 거죠.

디스플레이 공장 생산직

3조 2교대 형식으로. 회사가 설비가 끊기지 않게 사람을 계속 교대하면서 일하는 거죠. 저는 이 루틴대로 풀로 일해 본 달이 두 달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회사가 많이 유동적이에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의외로 가장 일이 많았어요. 그 후로 일이 쪽 없었어요. 잠깐 2주 바쁘다가 한가하고.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겠어요?) 예측이 불가하죠. 다음 달 시간표를 다음 달이 되기 전 5일 정도 전에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조적 취약성은 청년 여성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식대, 사회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권리를 요구하거나 협상할 권한이 사실상 제한된다. 참여자 대부분은 계약된 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거나, 법정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 여성은 혼자 매장 오픈과 물류, 청소, 주문 처리 등 다수 업무를 수행하며 식사 시간과 휴식 없이 근무하였다. 응대할 손님이 점차 늘어나거나 봄비는 시간대에도 업무량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아동미술학원 강사로 일한 여성은 학생 일정에 맞춰 야근과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면서 점심시간도 제공 받지 못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소액의 기프티콘이나 용돈 수준에 그쳤다.

아동 미술학원 강사

늦게까지 있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있으면 가끔 야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이 계속 밀려서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있던 적이 자주 있었어요. 사실 점심을 못 먹고 일했어요. 점심시간을 따로 안 주셨어요. 추가수당은 (원장님이 보셨을 때) 좀 과하고 힘들었다고 판단되시면 가끔 기프티콘 보내주시거나 월급 나올 때 용돈 처럼 한 5만 원 더 주신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저희 언니도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그걸 써야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요구하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요. (사장이) '내가 잘 챙겨 줄게', '사대보험 안 떼고 돈 많이 줄게'라고 하면 '사대보험 안 떼고 많이 주세요' 그러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데.

아이스크림 카페 직원

카페에서 월-금 주5일 동안,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쉬고요. 아침부터 문 열고,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었던 거 다 빼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창문 닦고, 어느 정도 오픈 준비를 마친 뒤에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에 물류가 들어왔는데, 물류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계속 혼자 채우고, 치우고, 넣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매장 관리를 하니까, 휴게시간을 법적으로는 주는데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밥도 막 서서 먹고 그랬었어요.

몇몇 청년 여성은 근로계약서상 명목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 법적 최저임금 및 추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네일리스트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고용주의 압박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한 청년 여성은 여행사, 도매·판매직, 마사지사 등 이직·전직 과정에서 사대보험 가입, 휴가, 식대 등 기본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폭언과 생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고용 관계에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네일리스트

샵에서 일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계약서인가?’라는 (의문이).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 ... 지금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미용 계통 쪽이 제가 일했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추가로) 60-80만 원을 재료비라고 써놔요.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니까. 법에 걸리니까. (중략)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근로계약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서 같은 느낌으로 ‘이거에 태클 걸지 마’ 이런 느낌의 계약서여서 의미가 없었어요.

여행사 직원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말 계속 바뀌고, “휴가 주니까 좋지?”, “월급 식대 주니까 좋지?” 하면서 생색 아닌 생색 내고. 한두 번이야 감사하다고 하는데 ... (중략) 대표님도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린 코딱지 같은 애한테 사대보험 안 해주려고 협박을 하니 ... 마지막에는 아깝기도 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된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보호가 부재한 상태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임금과 휴식, 병가를 요구할 권리가 제한되며,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세 번째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이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여성들은 청소년기 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인턴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배치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열심히 일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요식업, 학원,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숙련 형성, 경력 개발 등의 명분으로 사대보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 동안 일하다가 사회보장 혜택 미적용으로 일터를 떠나는 경험을 했다.

아동 미술학원 강사

근무하면서 시작할 때 (사대보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아는 분이니까 덮어놓고 믿고 갔던 거라서 한두 번씩 (사대보험) 얘기 꺼낼 때마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고. ‘그냥 3.3% 때는 프리랜서로 하자, 보통 다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셨어요.

프랜차이즈 식당 야간 노동자

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이직률이 수치로다가 떨어져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점장이 ‘실업급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점장 재량인가 봐요. 어떤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어머니는 점장이랑 친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점장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실업급여가 안 됐죠.

여행사 직원

팀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사대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 ... 사대보험? 그거 대표님한테 한 번 말해 봐야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 좀 잘 해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중략) 대표님이 무슨 종이를 두 장 꺼내서 내밀면서 ‘너 사대보험 받고 싶다고 했어?’라고 묻길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물하게 말했죠. 무서우니까. ‘줄게, 주는데 너가 실수한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너한테 청구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냥 안 받겠다고 그렇게 끝났어요. 스무 살 때.

이러한 배제는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제도에서의 배제로 이어진다. 청년 여성들은 디스크, 근골격계 질환, 부상 등 건강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치료비나 유급병가, 산재 보상을 요구하지 못했다. 자비로 치료하며, 아파도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카페 서빙 업무를 한 청년 여성은 허리 디스크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병원 방문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시간과 비용 부족, 고용주의 압박, 임금 기회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다. 애견유치원 교사인 청년 여성은 작업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짐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던 사업주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애견유치원 교사

연골판이 완전 뜯어진 것 같으니 2차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달을 기다렸어요. (대표가)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픈 걸 넘어서 정말 끔찍했어요. 인수인계 파일 들고 대표를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인센티브도 갑자기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일방적으로. (중략)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서 그것부터 법정에 가 있는 상태고, 답이 나오는 데 3개월이 걸린대요.

아이스크림 카페 직원

추석 때 손님이 매장에 다 들어차고, 밖에 줄 설 정도로 많았는데 명절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보통 가게에 냉장고가 밑에 있잖아요. 허리를 숙이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른 알바생도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바쁘는데 빨리빨리 하죠.’라고 말하고 일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거든요. 조금 터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터져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원래 추석 남은 날에는 안 나오기로 했었는데, 명절 수당이 아까운 거예요. ‘파스 바르고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에도 나왔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계속 참고 일했는데, 너무, 너무 아팠어요.

서빙직에 종사하는 한 청년 여성의 경험은, 업무상 질환임에도 산재보상을 받거나 치료·요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며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유급병가나 연차가 허용되지 않는 노동환경이 단순한 근무 조건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질병 치료 행위를 하루 임금 포기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개인의 선택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배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치료와 회복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권을 확보할 능력과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받는다.

노동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산재보험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가짜 프리랜서’들의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일리스트, 촬영 보조, 미용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여성들은 직업성 질환과 업무상 사고를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의 현실 속에서 산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건강권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촬영 보조 기사

다 개인적으로 치료했고, 회사는 없죠. (웃음) 제가 촬영하던 도중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면 그건 해주고, 제가 광고촬영을 나갔었는데, 콧대 옆 부분이 다른 분 실수로 맞아서 찢어졌어요. 그날 병원비는 내줬어요. 근데 사실 얼굴이고 피부에 흉이 지잖아요. 흉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다 제 돈으로 치료받고.

스타일리스트

회사에서 산재를 해줄 리가 만무하고. 근데 사실 스타일리스트들이 산재보험 이런 걸 잘 몰라요. 보통 다 프리랜서들이어서 이쪽에서 4대보험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보통 없었어요. 세금도 안 떼고 일하고. 그러니까 산재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회사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퇴사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넷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학력에 기반한 구조적 취약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같은 업무 수행 능력을 지녔더라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임금, 승진, 중요 업무 배치에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는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한 청년 여성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는 대졸 사무직의 업무를 배정하였지만, 같은 업무를 오래간 하여도 학력에 따른 상이한 연봉체계, 숙련 형성 기회 제공의 차이, 장기적인 경력 형성 어려움을 경험하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

사무직

저는 여러 회사에 다녔어요. 계약직도 해보고 정규직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디 가나 차별은 있더라고요. 고졸에 대한 차별. ‘애는 영어를 못할 것이다, 애는 다른 언어를 못 할 것이다, 애는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같은. 저는 외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중략) 고졸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고졸이 승진하는 루트가 따로 있고 대졸이 승진하는 루트가 따로 있어요. 기간도 다르고, 직함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요. (고졸한테는) 일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중요한 업무를 안 맡긴다거나 ...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기는 해요.

특히 학교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일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훈련 명목으로 채용되고, 노동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간주되어 노동권 협상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졸업 후에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도 여전히 '직업 훈련 중'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고용주 때문에 임금, 근무 시간, 휴게권, 초과근무수당 등을 협상하는데 제약을 보고한다.

훈련 명목으로 채용되는 헤어디자이너, 마사지사 등 서비스직 청년 여성들 역시 구조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임금 노동자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 교육·훈련과 업무 수행이 결합한 형태로 채용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불투명한 임금체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미용사 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나이도 어렸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 밥을 못 먹는 건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을 때도 많았고. 쉬는 날도 없어요. 심지어. 주 6일 근무인데, 평일에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것마저 예약이 들어오면 나가요.

미용사 ②

계속 서 있기도 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깨나 목이 탁 움츠러들거든요. 중간에 목에 담 오고. 웃은 (제약이) 심하진 않은데 구두나 로퍼를 신어야 하니까. 딱딱하니까 종아리나 허벅지가 되게 ... (위장이 안 좋은 건) 거의 만성이니까. (웃음) 맨날 밥 못 먹어서 밤에 먹고 자고 이러니까요. (중략) 어깨랑 통증 이런 건 만성 직업병이니까 늘 병원에 다녔고, 정형외과에 가면 항상 적외선, 찜질, 그냥 약을 주니까 그때뿐이구나 싶어서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요.

마사지사

제일 짜증나는 게, 안 그래도 저녁 8-9시 까지 일하는데 식비도 안 챙겨줘요. (식비 챙기는 게) 의무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기들 일을 다 하고 (직원들을) 남겨요. 테크닉을 배우느라 밤 10-11시에 갈 때도 있고. 잠 나는 시간에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다행히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요.

요리사

고등학생때도 대학생때도 일학습병행제로 해왔어요. 그때는 학생 신분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니까. (중략)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곳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는 주 5일 (일 나가고) 학교에 하루 가는 걸로 알고 갔는데, 거기는 디폴트 값이 주 6일 근무인 거예요. 월 몇 회 휴무만 정해진 형태인 거예요. 저는 '어 ... 네, 네'하고 넘어간.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리조트 프런트

리조트로 갔어요. 그때는 그냥 학교가 싫어서. 선생님들도 외모평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은행에 (취업) 가고 싶으면 살을 빼든가 쌍꺼풀 수술하고 와야 한다는 선생님도 계셨고. (중략) 리조트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면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데, 다 어기고 12시간씩 근무시키더라고요. 정해진 돈만 내 통장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 초과 걸리면 안 되니까. 12시간 2교대 근무였는데, 4개월 버티다가. 새벽 4시 출근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4개월 근무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요식업 쪽으로 갔어요.

사무직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취업부에서 어쨌든 연결해줘서 갔잖아요. 성추행 사건 그때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길 나가면 또 어딜 가지?, (다른) 거기는 이리저리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특성화고 출신 청년 여성이나 서비스 직군에서 훈련·교육 명목으로 고용된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일 12시간 이상), 휴게시간 미보장,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며 신체적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했지만, 치료 시간과 휴식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할지 고민하며, 경력 형성의 어려움을 겪었다.

다섯째, 지역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도 보고된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은 첫째, 좋은 일자리의 부족, 둘째, 인맥 기반 평판 우려로 인한 일터에서의 협상력 부족, 셋째, 청년 여성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몇몇 여성들은 서울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수당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다. 서울에서 같은 직종에서 일하며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등 노동조건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했다는 한 청년 여성의 이야기는 저임금·법적 보호 부족으로 야기되는 건강 문제를 보여준다.

프랜차이즈 식당 야간 노동자/요리사

간간이 흠서빙한 것도 최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선택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너네도 알바 자리 별로 없으니까 하게 될 거다’ 이런 마인드인 건지. 가끔 뉴스에 편의점에서 최저도 못 받고 일했다고 하면 대부분 지방 쪽이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서울 와서 알바했을 땐 한 번도 최저 아래로 받는대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빈번했던 것 같아요.

배달 대행업체 기사

서울 같은 곳은 자전거, 도보 배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같은 데를 보시면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 안 돼요. 차가 없으면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오토바이를 배달 플랫폼 회사에선 안 빌려주지만, 배달 대행업체에선 리스를 주잖아요. 렌탈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 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빙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저임금은 잘 지켜주셨는데 주휴수당이나 그런 걸 받지는 못했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 서울에 오면 그런 게 많이 잘 지켜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한 지역은) 작은 곳이니깐 건너면 다 알아요. 다른 알바에서 저번에 같이 했던 언니를 만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 사장님들끼리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고.

물류센터 일용직

한창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라 ...

사실 지금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지만 그때 더 힘들었어요. 상담 전화 뭐 이런 업무도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한 7개 넣으면 7개 다 떨어지는 식이라서 그냥 물류센터로 바로 가게 됐어요.

사무직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한 10명 중 8명은 서울, 창원, 아니면 해외 이렇게 다 나가고. 1-2명만 부산에 남아있어요. 부산은 워낙 좁아서 소문도 되게 많이 나고, 부당한 일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 업계에서 안 좋아하는 ... (서울은) 넓고, 회사도 워낙 많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 이 회사에 다니다가 다른 데에 가도 덜 영향이 가는 것 같고요.

속기사/와인판매직

그 사무소에서 처음에 속기사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까 ... 그런데 저를 뽑으려면 속기사는 (지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마케팅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은 고용 지원금을 받으면서 저를 정말 싼값에 속기사로도 부려 먹고, 마케팅 일로도 부려 먹은 거예요.

② 젠더 기반 취약성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시장 내 젠더 기반 취약성에 기인한다. 일터에서 청년 여성들이 직면하는 젠더 기반 취약성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기보다, 구조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 연령 규범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여성의 직업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청년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이들의 노동 건강을 악화시킨다. 반복 작업, 장시간 노동, 불편한 자세, 적절한 안전 장비 미제공 등도 마찬가지다. 청년 여성의 일과 건강 문제가 과소평가되어 이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다치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병원 진료나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거나 병가를 사용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행위’라 이야기된다. 직장 내 문화는 여성 노동자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간과하며, 여성이 하는 직무를 ‘쉬운 일’이라 여기며 휴식 없는 반복 노동, 안전 장비 미지급 등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환경이 산업재해 위험과 직업 관련 건강 손상을 초래함에도, 사회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청년 여성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무직 ①

내 몸조차 스트레칭을 하지 못하면서 눈치 보는 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냥 한 번 일어서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깐 팀장님께서 ‘정신없게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스트레칭도 한 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내다 보니까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병원도 예약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

사무직 ②

제가 좀 힘들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면 농담 식으로 던지는 말이 “맨날 위에서 꿀 빨면서 뭐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 (여성의 노동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딱히. 당연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힘들겠어’ 이렇게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겠네요) 지치죠.

원단 회사 직원

아시죠? 일하다 보면 ‘병원 가겠습니다’ 못하는 거. 눈치 보이니까. (“말 흐리면서) 아, 저 병원 가야 하는데 ...” 하면 “아, 가야 돼? 알았어. 가” 이렇게 된다든가. “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눈치 보이니까 (병원) 거의 제대로 못 다녔어요.

셋째, 남성들이 다수인 일터에서 일하는 청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업무 평가와 미시적 공격에 노출된다. 청년 여성 노동자는 조직 내 협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평가받고, 남성 동료에 견주었을 때 능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한다. 또한, 사회운동,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은 온라인·사회적 평판을 통해 노동 과정에서 추가적 취약성을 경험하는데, 여성이기에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남성 노동자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업무 평가와 조직 내 인정은 여성의 '능력'이 아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업무 평가와 사소한 실수조차 '여성 노동자'로서 평가된다. 가부장 문화를 지닌 조직에서는 여성의 성별이 노동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며, 여성의 성적 특성이나 외모, 사회적 역할이 노동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 청년 여성은 노동자로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여성이라는 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묘하게도 아니고 사실 되게 노골적으로? 이를테면 뭔가 결정해야 하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논의하잖아요. 그 논의를 그동안 저와 소통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할 때는 저랑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40대 남성 활동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요리사

제가 막내고, 제가 경력자 정직원인 상태인데 밑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쪽은 알바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맨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나보고 당신 알바생이냐고 해서 어이없었어요.

IT 프로젝트 매니저

압도적으로 팀원 중에 제일 잘하는 수준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거나,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 협업이니까 프로그래밍을 나눠서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합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여직원 잘못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게임회사 개발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여성을 무시하는 게 좀 강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많이 무시 받고, 실제로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저거 기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저거 옛날 같으면 재떨이 던졌을 텐데' 이런 말을 너무 해요. 회사에서 대놓고는 안 하죠. 약간 회식 같을 때, 좀 편하게 말하는 시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촬영 보조 기사

저는 약간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워터 단계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도 워터 조수로 올려주지 않는 것도 컸어요. 직급이 낮을수록 더 힘든 일을 많이 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많이 뛰어다니니까 몸이 더 많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너는 지금 여자로 이런 일을 계속하려면 더 독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언이라기보다 저한테 잣대를 엄격하게 바라보시는 게 되게 컸어요.

제조업 엔지니어 및 물류

제가 원래는 엔지니어 역할을 했었어요. 설비 고치는 역할이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 뒷사람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여자랑 일 못 하겠다고 ... 자기가 겪어봤는데 여자들은 힘들다고만 하고, 불평불만 한다고 절 불러다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회사에 신고했는데, 이 일을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야 했어요. 부서 옮겨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류 쪽으로 좌천된 거죠. 물류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고요.

③ 관계적 취약성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의 노동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가족 관계,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 또래 집단 및 네트워크 등에서 경험되는 관계적 취약성이다. 관계적 취약성은 친밀한 관계, 가족, 돌봄, 직장 등 구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야기하고 개인의 삶에 제약을 가한다. 청년 여성의 경우, 이러한 관계적 취약성은 젠더, 세대, 지역 구조와 결합하여 노동시장 경험과 삶의 전반적 안전성을 동시에 제한한다.

첫째, 청년 여성들은 직장 내 동료나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들과의 네트워크 부족이라는 관계적 취약성 때문에 정보 부족을 경험한다. 직장 혹은 해당 직무에서 젊은 여성으로 홀로 일하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업무에 대해 질문하거나 동료 상사와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업무와 직장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지역의 청년 여성들은 같은 업종과 직종에 취업한 친구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가 더 용이하였을 거라 이야기한다.

사무직

제 주변 친구들도 취업을 안 했었던 터라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그 회사에 20대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회식 가 있고.

여행사 사무직

스무 살이니까 사회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주변에서 '사회인은 이런 거다' 배운 게 없었어요. 완전 맨몸으로 배운 거죠. 제가 스무 살 때 거의 남성분들이랑 일했던 말이에요. 뒤편 대표님, 옆에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이 혼자서 '*발'이라고 욕하고. 가끔 혼자 그런다는 식으로 말해요. (중략) 당연히 제가 잘못된 건 혼나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건 불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엄마부터 해서 개인적인 거 말하면서 그러면 인생 못 산다든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들었죠.

특히 '정(情)'의 개념은 청년 여성 노동자가 조직 내 관계와 감정을 우선하여 행동하도록 강요하며, 자신의 노동권 요구를 연기하게 만들거나, 과도한 노동 참여로 이어졌다. Thayer, Robert E. (1998)는 기분(氣分)을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로 말한다. 또한 '기분'은 구체적이거나 강하지 않고, 특정 자극이나 사건에 의해 쉽게 촉발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감정'과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정(情)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더 나아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정의되나 서양의 정의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한국의 특수한 심리학적 개념이다. 정(情)은 한(恨)과 같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담겨 있는데, '정' 때문에 자신의 재해를 돌보지 못하거나, 퇴사를 미루거나 그것이 퇴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여러 음식점의 서빙과 주방일을 한 한 청년 여성은 '정이 진짜 무서웠다'는 말을 통해 '정'이 신고를 미루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한다.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청년 여성도 '동네의 특수한 상권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내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야 하는 일, 거절해도 될 일을 '정'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다쳤던 사진을 찍어놓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여차하면 신고하겠대! (마음이었는데) 매니저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정이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일리스트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들, 예약 시간 맨날 안 지키시는 분들 ... 다른 샵 원장님들은 (그런 손님을 안 받는) 그러기도 하는데 저희는 약간 아무래도, 동네 분위기가 ... 주책가는 거의 유동 인구가 있는 게 아니고 동네 분들이라 그렇게까지 막 쉽게 팍 내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째, 몇몇 청년 여성들은 관계적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적·물리적 지원 부족뿐 아니라 홀로 짊어진 가족 돌봄과 생계 부담에서 오는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호소한다. 이들은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부터 가족의 생계와 돌봄 책임을 도맡아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과중한 돌봄과 생계 부담은 만성적인 피로와 신체 질환으로 이어졌다. 지원사업에서는 '부양 부담'의 기준을 폭넓게 설정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 일부 또는 일체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양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전체 지원 대상자 220명 중 27.7%(61명)가 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청년 여성은 자신을 홀로 키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치매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였다. 그는 일터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고용주는 고용 관계를 부인하며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또 다른 여성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와 중증장애를 지닌 외삼촌을 낮에 돌보고, 밤에는 편의점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긴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지면 시간제 동물 돌봄, 서빙, 화장품 공장 등을 오가기도 했다. 그는 수년간 수면 부족 상태로 생활한 끝에 족저근막염 등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또 다른 청년 여성은 어머니의 영양실조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을 돌보게 되었다. 서울만큼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퇴근 후 어머니에게 반찬을 들고 종종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지내고 있다. 가족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 여성의 경험은 관계적 취약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이 교차하여 건강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드러낸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은 제가 여성 한 분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집에 (다른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례관리사도 다른 분들 안부도 저한테 물으시고, 거의 그 가정 담당처럼 되어 버리긴 했어요. 설거지나 집안일을 해주면 안 돼요. 이용자의 것만 해야 돼요. 그거는 열심히 지키고 있긴 한데, 매뉴얼도 없고, 이선이 없다 보니까 ...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1인분만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냄비에다가 만들어두면 이를 이면 사라져요.

요리사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고향에 내려 가고 싶긴 했는데,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 이 시대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오빠는 지적 장애가 있는데, 오빠가 엄마랑 살며 엄마를 케어해주죠. 근데 오빠가 남자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음식도 오빠 스타일대로 하니깐. 거의 반찬이 김치, 감자볶음, 계란프라이니까 제가 반찬을 보내줘도 영양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버는 돈으로 다 충당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 물류센터 야간 일용직 노동자

스무살이니까 알바해서 야간에는 수업 다니고 주간에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주말에는 안 쉬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일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야간 물류 뛰러 가고. 야간 물류는 단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일했어요. 그러다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 워낙 장시간 오래 서 있기도 하고 쉬는 타임 없이 일하니깐. 몸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일 끝나고 쪽잠 자는 게 아니라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거든요. 휴식이 없어요. (중략) 잠을 아예 거의 못 자요.

휴게소 및 양봉장 아르바이트 노동자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랑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일해서 산재 처리는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치매도 있고 반신마비이셔서 장애수당이 나오는데 제가 일을 하고 부양하면 그 수당들이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휴게소에서 (일할 때도) 소득 신고한다고 해서 주민번호를 알려줬는데 삼촌이 알고 바로 연락 와서 취소해달라고 하라고. 그만큼 (수당) 깎인다고.

4. 지원사업을 통해 본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의 필요

참여자들은 청소년기부터 늦으면 대학 재학 중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금 노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며 몸과 마음이 아파졌다. 반복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저평가 속에서 '억울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였고, 이는 우울감, 불면, 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며 은둔하는 등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사회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위기를 개인의 실패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콜센터, 사무직, 서비스직 등 감정노동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끊임없는 실적 압박", "비인간적인 대우",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노동 경험"을 이야기한다.

외국계 회사 사무직

너무 스트레스 심하고 맨날 똑같은 자세로 이메일만 하루에 몇십 건 보내고, 전화 받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골반도 아픈 거예요. 근데 팀장님께서 외로우시니까 퇴근하고도 같이 놀자고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왔어요. 신체 정신이 둘 다, 갑자기 생각하니깐 너무 싫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 (중략) 데이터화해서 제가 이메일을 다 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니 월급 주는 게 더 싸니까 너한테 시키는 거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부품 느낌이었어요. 소모품. 회사가 그냥 쓰고 버려도 되는 약간 일회용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사회초년생이 업무를 배워나가는데 열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 이러한 이중의 기대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한 청년 여성은 어느 회사에서 일해도 몸과 마음의 안녕을 모색하기 어렵기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몸이 아픈 게 낫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퇴근 후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만 보장되었다면, 지금처럼 몸이 아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한 청년 여성은 업무 요청을 거절하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을 걱정했다. 이는 청년 여성이 일터에서 '썩썩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가 여성 청년의 노동과 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무직

몸이 아픈 거는 정신이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 정신이 아프진 않으니까 이 회사에 있어야겠다 ... 어차피 어딜 가도 똑같이 아픈 건 아픈 거니까. 둘 중 하나만이라도 안 아프려면 (여기에) 있어야겠다 싶어요. (중략) 20대밖에 안 됐는데 내 몸이 왜 벌써 이렇게 됐을까.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었다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까 ...

이는 청년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건강권을 주장하거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결국 개인의 자구책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화된 대응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청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일부 참여자는 정신건강이 나빠져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은둔하게 되는 등 심각한 고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 여성은 콜센터에서 실적 중심의 압박과 기본급 미지급에 가까운 임금체계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던 중, 극심한 정서적 고통 끝에 자살 사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며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였다.

텔레마케터

‘고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살았어요. 그때 서울 올라와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 제가 그때 우울증이 심해서 ○○대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집에 와서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피드백이 있었나요?) 정신과 연계시켜주시고. (서울 오고) 6개월도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도서관 기간제 사서

눈물이 나고, 이용자가 뭘 물어보는데 숨이 가빠지고 ... 울먹거리면서 말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겠고, 이 쌓인 업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중략) 휴직 전에, 상사 두 분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에둘러서 “사실은 도서관 내 모든 실의 홍보물을 담당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다른 도서관도 이런지, 저는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한테 너무 많이 가긴 했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이 정도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지원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와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한 경험은, 청년 여성들에게 제도의 존재와 타인의 손길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자각하게 했다. 한 청년 여성은 “성적 우수자” 외에는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나 보상도 없던 삶 속에서, 사회가 내민 손에 감사함을 느꼈고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산업재해’나 ‘산재보험’은 청년 여성 집단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보고서야, 자신의 건강 문제가 일터의 조건과 연관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여성 노동이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 활동가

저는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 페이스북에서 한 단체 활동가분이 공유해 주신 게시물을 보고 (지원사업 소식을) 알았어요. 일단은 ‘산재 회복’ ‘앞에 청년여성’이 붙어 있어서 ‘내 얘기인가?’ 했어요.

외국계 회사 사무직

(포스터를) 보니까 20대 청년이고 근무하거나 프리랜서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적혀있길래요.

스포츠센터 강사

(어떤 게 와 닿으셨어요?) 산재요. 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 ...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도요.

앞으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청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눈으로 읽어 본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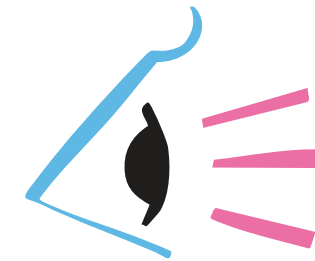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있던 청년 여성들

‘청년 여성’, ‘산재’ 두 단어는 언뜻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흔히 청년 여성들에 대해서는 ‘젊으니까 건강하겠지’, ‘청년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겠어’ 등의 인식이 있다. 비정형·불안정 노동이 넘쳐나는 고용 환경에서 이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 등이 중첩되어 청년 여성들은 일터에서 겪고 있는 자신들의 아픔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

‘산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역시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추락, 끼임, 깔림 등에 의해 사망한 남성 노동자이다.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기 때문에 다치고 병드는 정도의 사례는 언급될 기회가 많지 않다. 청년 여성과 산재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4년 동안 1천여 명의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 경험을 접하고 나니, 이들의 산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절대 적지 않았고, 가볍지 않았으며,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일하던 사람들이 청년 여성이었다.

법의 보호 영역을 벗어나 제도권의 관심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터에서의 건강권이 오롯이 개인의 관리 영역으로 넘어가고, 분명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청년 여성들이 놓여 있다.



청년 여성들의 눈으로 들여다본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청년 여성들은 왜 점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일까? 성희롱·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많은 청년 여성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픔을 참고 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법상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산재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있음에도,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산안법을 처음 접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예비 보건의로 종사자, 활동가, 노무사 등이 모여 총 3회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산안법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갖는 문제의식 등의 평가를 얻기 위해 처음에는 산안법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2~3회는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 여성들의 사례 8개를 선정해 청년 여성들이 일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 과정에서 겪은 산재 유형들은 무엇인지, 일하다가 아픈 것임에도 산재를 신청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에 법과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청년 여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산안법

산안법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급제한에 대한 규칙을 두어 좀더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건설·제조·서비스 등 업종별로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어찌 보면 법은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재가 많아 보이기도 했다.

산안법이 청년 여성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안법의 전체 구성을 처음 살펴본 이들의 첫 느낌은 다양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였다. ‘요즘 청년 여성들이 일하는 일터와는 관련이 없는 법’,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 현장, 대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는 잘 갖춰진 반면에 질병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법’, ‘서비스업에서도 분명 위험요인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많이 부족한 법’ 등의 생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법은 현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법률용어로 적혀있어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산안법은 주로 국가, 사업주의 의무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와 닿지 않는다. 또한 주로 건설·제조업에 초점이 있고, 오늘날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산안법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소규모 카페의 적정 인원은 몇 명일까?

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청년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물품 정리, 고객 응대, 판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식사도 매장 한 편에 서서 해결했다. 1인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장을 운영하느라 휴게 시간 30분은커녕 마음 놓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곳에서 노동자가 혼자 근무하는 건 당연한 걸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간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2021. 8. 17. 산안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차·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은 상시 20인 이상의 사업장 등 일부 대상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만들어 놓은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진행한 3일간의 커피 한잔 500원 이벤트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SNS에서는 이벤트 기간 과로로 쓰러진 점주를 다룬 기사, 매장 손님을 받는 테이블에 빼곡히 정리된 플라스틱 컵 사진, 하루 5시간 근무하며 280잔을 만들어 낸 직원의 불매 부탁 게시글 등이 화제가 되었다. 고객 입장에서 처음에는 낮은 가격에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노력을 갈아 넣고, 다른 매장에 피해가 가는 이벤트라면 선뜻 동참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경영상 판단을 할 때, 평소보다 수배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그만큼의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등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있었다면, 어쩌면 커피 500원 이벤트는 씁쓸하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류 정리할 때는 젤라또 5kg짜리 바트가 한 번에 40개에서 7-80개 정도 들어와요. 음료 컵도 있고, 뚜껑, 홀더, 티슈, 손가락도 들어와요. 크로플을 파니까 칼도 있어요. 젤라또에 먼지 안 들어가게 덮어놓는 유산지도 있어요. 캔 음료나 유리병 음료도 혼자서 다 나르고요. (중략) 음료도 다 만들고, 젤라또도 혼자 푸고, 크로플도 혼자 굽고, 식재료도 우유도 냉장고에서 날짜 확인하고 폐기하거나 시키거나. 재고 확인도 제가 하고요. 왜냐면 매니저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미리 해두는 거죠.



빵집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육체노동자일까?

지원사업에서는 만난 청년 여성 중에는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를 만들고, 빵집 제빵사로 일한 사례도 있었다. 이 청년 여성은 하루에도 몇 번씩 10-20kg의 밀가루 포대를 혼자 날랐다. 별다른 도구는 없었고, 짧은 거리에 운반해서 잠시 들어 올리면 된다는 생각에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손목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핫도그 가게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를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빵집에서 일할 때도 '제빵사들은 보통 그 정도는 아프지'라는 생각에 더해 이전부터 아팠던 통증이있기에 산재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 여겼다.

흔히 빵집 제빵사의 업무라고 하면 작게 소분된 빵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워내는 것을 떠올리지만, 제빵사는 10-20kg의 밀가루 포대를 혼자 들고, 나르고, 붓고, 젓고, 반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엄청난 육체노동자이다. 뜨거운 오븐이나 기름을 다루며 얼굴, 팔 등이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위험요인도 많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따르면 5kg 이상의 물품을 중량물로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량물은 뭔가 더 무거운 쇠팅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10-20kg의 밀가루 포대 정도는 혼자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서비스업종의 안전보건교육 기본서에 중량물 작업 시 행동 요령을 보면, 수납장을 옮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중량물의 예시는 무거운 자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졸업하고 사무직하다가 제과제빵으로 틀었는데, 사무직할 땐 터널증후군 수준이었는데 제과제빵하면서 매일 10-20kg 들고 나르고 하니까 염증이 터지고 확 심해지더라고요. (중략)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핸드폰을 못 들었어요.”

“데이기도 많이 데이고. 다행히 흉터가 잘 안 남는 타입이긴 한데, (팔에) 좀 남아있는 게 다 화상 자국이긴 해요. 제가 쪽 기름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기름에 들어가면 바로 안 뜨겁거든요. 기름이 될 땐 바로 따가운데, 손을 (아예) 담그면 뜨거운 줄을 몰라요. 핫도그를 말아서 넣잖아요. 빨리하다 보면 손을 담글 수 있거든요. 담그고 한 1-2초 있으면 뜨거운 게 올라오거든요. 바로 씻으면 화상을 안 입는데, 모르고 일을 하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중략) 뜨거운 거에 내성이 생겨서 뜨거운 걸 잘 못 느껴요. 남들이 뜨겁다는 걸 잘 만져요. 공기밥 그런 거 잘 만져요 (웃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여성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과 산재보상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조직된 남성노동자들의 노력과 이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들의 기록이 쌓여 점차 기준을 개선하는 선례가 되었고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특정 성별과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성별·나이에 대한 산재 편견이 만들어졌고, 다양하게 변화한 노동·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전에 머물면서 점차 법 사이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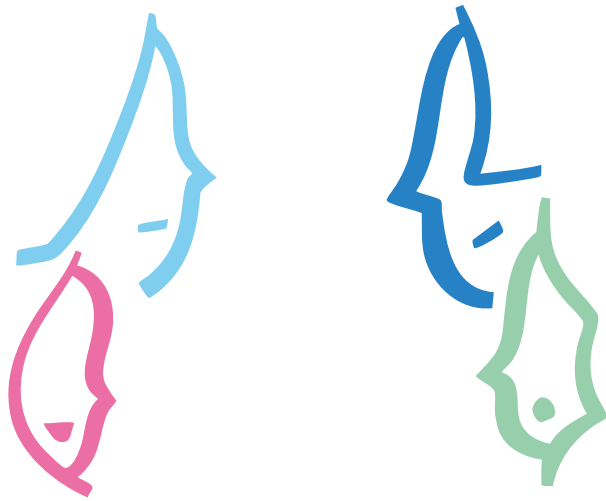
대표적 남성 직종인 건설업은 위험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있는 돌봄업은 안전하다는 편견, 정신 건강상 유해 요인과 생물학적 환경적 유해 요인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육체적인 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여성의 산재는 노화, 가사노동 때문이라는 편견 때문에 인정률이 낮기도 하고, 성인 남성을 표준으로 설계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산재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중장년의 여성 노동자가 20년 동안 공장에서 화장품 뚜껑을 조립하는 일을 하며 손목에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면 ‘설거지 많이 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소견을 듣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에 비하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조금씩 사례가 쌓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 탓인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노동자의 희생 속에 생겨나고 개선되고 있는 산안법과 산재법에 이제는 젠더 관점을 추가하고, 고용 형태의 변화로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년 여성 산재 사례를 청년 여성들의 구체적인 일 경험을 살펴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산안법을 생각한 이번 사업과 세미나는 어쩌면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일지 모른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여성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계속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한다.

3 네트워크 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청년여성을 서류로, 전화 너머 목소리로 만났다. 지원사업 두 번째 해를 정리할 때 문득 '이 사람들을 한번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오프라인 모임은 장소를 정하는 일부터 프로그램 구성이나 진행 등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아 준비하는 게 까다롭다. 우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들처럼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고립된 사람들이라면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다. 세 명만, 단 두 명만 와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임을 준비했다. 2024년에 1차례, 2025년에 2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꾸렸고 적게는 네댓 명 많을 땐 열 명 남짓한 청년여성들이 자리했다. 지금부터 청년여성 노동자들과 만든 세 번의 시간을 소개한다.

참으면 병나! 놀러와

당신을 위해 노동건강연대가
일일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노무사님께 산재 대처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수다도 떨어봐요. ✿

맛있는 식사와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했어요.

- 📅 일시 2024. 9. 28.(토) 11:30 ~ 16:30
-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라길 31 2층
〈퇴근후 2시간 인사라운지〉
-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오시면 교통비 지원!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2024 네트워킹 '참으면 병나, 놀러 와!' 일하는 청년여성을 만나다

아파도 참았던
청년여성,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다

2024년 9월 28일,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기획한 청년여성 네트워킹 행사 <참으면 병나, 놀러 와!>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청년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으고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날의 모임은 출발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 강의 소재로 사용된 '첫 노동 공략집'과 '이것도 산재예요' 책



‘이것도 산재예요?’
우리가 몰랐던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

‘한 줄 자기소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분이나 오실까?’ 긴장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여섯 분의 참가자가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같이 읽기’ 시간에는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안현경 노무사와 「이것도 산재예요?」, 「알아야 지킨다 - 첫 노동 공략집」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안현경 노무사의 안내를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고르고 직업을 가질 때 생각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같은지,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퇴직할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여러 장 발급해두라는 꿀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용한 정보들도 얻었지만, 생각거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법률 구조상,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노동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녹취물 등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고, 질병의 경우 하는 일과 앓게 된 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노동자 개인이 밝히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모두 공감해주셨습니다.

안현경 노무사의 발표가 끝나자 몇 개의 질의가 오갔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세한 법적 기준을 알게 되니 유용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까지 대비해야 하나 싶어 어딘가 씁쓸해지기도 하였습니다.

▲ 안현경 노무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한 청년여성노동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나누다

오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전, 참가자들은 준비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프로 사진작가님께 포즈 코칭을 받으며 예쁜 프로필 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시락은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비건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토크타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일해봤다', '아픈데도 못 쉬고 일했던 경험' 등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니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하던 분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릇을 깨는 등 자잘한 실수부터 시작해 따돌림, 손가락 열상이나 깔림, CCTV 감시 등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오가자 서로가 대신 분노하기도 하고, 아픈 이야기에 공감하기기도 했습니다. 청년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었던 일은 역시 '과로'였는데요, 열정페이 문제부터 12시간 근무, 주7일 근무, 추가수당 없는 밤샘근무까지 경악할만한 경험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청년여성들이 일하다 다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동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산재 처리를 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많은데, 본인이 겪은 일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만류하여 산재 처리를 안 한 경험들이 오갔습니다. 흔히 골병이라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 때문에 생긴 거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정보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연도 있었네요. 어렵고 복잡한 산재 처리 과정이 간단해지고, 일하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다면, 언젠가 코로나 회복 지원금을 받듯이 쉽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 프로그램인 '테라피 프로그램 : 나만의 감정 향수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테라피스트와 함께 감정카드를 매개로 자신의 최근 감정을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넬 수 있는 도입부는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나 취업 준비를 앞둔 몇몇 참가자들이 '불안'이나 '설렘'과 같은 감정카드를 고르자, 다른 참가자들이 용기를 북돋는 감정카드를 뽑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찾은 자신의 최근 감정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감정 향수를 두 종류 만들고, 답례품까지 드린 후에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테라피 프로그램: 나만의 감정 향수 만들기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달리는 모임부터 영어·중국어 등 회화를 익히는 모임, 독특한 주제의 독립영화만 골라서 같이 보는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도 있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모임처럼 건강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모임의 전성시대입니다.

지난 7월 12일 토요일, 서울역 인근 아담한 공간에 오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바로 ‘일하다가 아파본 청년여성’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들에게 모임 포스터를 돌렸고, 열 명 남짓한 사람이 기꺼이 손을 들었습니다.

▼ 2025 <참으면 병나, 놀러 와!> 포스터



2025
참으면 병나, 놀러 와!

일 시 :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11:30~16:30
장 소 : 브라운테이블 서울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5길 30 2층}

노동건강연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2025 네트워킹 일하다가 아파본 사람들? 여기로 놀러 와!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할 시간이 무색하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전에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의 이름을 묻고,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비하느라 분주한 활동가에게는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라고 물으며 일손을 보태는 다정한 시간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 일하다 생긴
문제 대응법

모임 첫 시간은 안현경 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일하다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부터 일 시작할 때, 그만둘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서류, 산재 신청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속성으로 공부합니다. ‘퇴사했는데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내용은 OX퀴즈로 진행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궁금했지만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쏟아내고 보니 금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하다 생긴 문제 대응법’을 강의하고 있는 모습



책상을 붙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은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 같습니다. 마치 몇 번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인 양 재잘대는 목소리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치웁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생각을 기꺼이 나눌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도 열립니다.

소소한 일탈 안에서
주고받는 위로 :
미술 소통 프로그램

미술 소통의 주제는 '소소한 일탈'입니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과자 더미 속에서 '평소대로면 사지 않을' 과자를 한두 가지 고르는 데에서 작은 일탈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를 유심히 보다가도 활동가들이 마트와 세계과자점을 돌며 모아온 특이한 과자들 덕분에 한바탕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장지에 생선이 그려진 쥐포부터 로제 떡볶이맛 감자칩, 누룽지치킨맛 아몬드, 솜사탕, 땅콩크림 웨하스, 마시멜로, 엄청나게 신 젤리, 추억의 알사탕 ... 저마다 고른 과자를 뜯어 맛보고 포장지를 붙여 감상을 적습니다. '역시 그동안 사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부터 '먹어보길 잘했다' 등 반응은 다양각색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탈을 물고로 이전에 일탈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나만의 일탈'을 생각하며 다이어리에 표현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나에게는 일탈일 수 있죠.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해외봉사를 신청했어요', '놀이터에서 그네랑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요', '혼자서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어요', '일이 너무 바쁠 때 소리 지르면서 집으로 뛰어가고 싶어요' 상상하는 일탈이 쌓여갈 때마다 탄성과 공감의 박수가 섞입니다. 한 청년여성은 '얼마 전부터 바다에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며 바다에 가는 걸 일탈로 정했습니다. 다이어리 양면 가득 붙인 파란색 마스크 테이프가 꼭 바다 같습니다.



▲ 일탈 경험을 다이어리에 꾸미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스카치캔디' 포장지가 눈에 띈다

한 바퀴를 돌은 뒤 다시 받은 다이어리. 고양이, 강아지, 판다 등
귀여운 동물 스티커부터 응원의 말이 담긴 스티커가 다양하게 붙어있다 ▼



▲ 미술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변우리 선생님과 웃고 있는 참가자들

꽃꽂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다이어리를 꾸미는 시간을 보냅니다. 각자 최근 고민하는 주제를 몇 개의 단어로 적고 난 뒤, 다이어리를 옆으로 돌리면 다음 사람이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스티커를 마구 붙입니다. '불안', '취업', '건강', '외로움' 등 쓸쓸한 단어만 덩그러니 쓰여있던 하얀 종이를 보냈는데, 다시 받았을 땐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티커들에 가려 그 단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걱정된다는 말 옆에는 네잎클로버 스티커부터 '럭키밤'까지 행운을 담은 온갖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 완성된 꽃바구니를 들고 찍은 기념사진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노란 여름꽃이 가득한 꽃을 들고 바구니에 꽂으며 오늘을 정리합니다. 꽃과 풀 향기가 퍼집니다. 오늘 모인 청년여성들은 하는 일이 모두 달랐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 간호사, 작가 일과 쿠팡을 병행하는 사람, 웹 개발을 하다 쉬는 사람, 운동선수 출신으로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 등 직업은 다르지만 겪은 고충은 다른 듯 닮아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반복 작업 때문에 만성적으로 아픈 몸 ...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여성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청년여성과 노동은 좀처럼 나란히 배열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홀로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내 옆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모이면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나누며 더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함께 해내며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날 참석한 청년여성 중 한 분이 이번 모임을 ‘따뜻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해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겠지요. 자리를 정리하며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보기로요. 그때 어떤 즐거움을 나누고 어떤 위로를 주고받게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 2025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템플스테이> 포스터



올여름 진행한 <2025 참으면 병나, 놀러 와!> 미술 소통 프로그램의 큰 주제가 ‘일탈’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가 소소한 일탈 경험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탈 낭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떠나는 여행만큼 현대인에게 큰 일탈이 있을까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 잠시 명상과 마음 챙김에 몰입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 비슷한 청년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나눌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재미날까요? 이 기대감으로 2025년 청년여성 템플스테이 행사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임을 서울에서만 진행했던 것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기에, 이번 행사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명소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과연 이번 행사에는 몇 분이나 와주실까?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하루를 빼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으로 인연이 닿았던 청년여성 네 분께서 부산까지 선뜻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산역에서 만나 김밥을 나눠 먹고 선암사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당일치기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준비한 조끼를 입고 비구니 스님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찰 구경을 위해 대웅전 밖으로 나가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대 했던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와는 달랐지만, 산속에서 안개 낀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제법 운치 있었습니다.

선암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습니다.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범종을 비롯하여 법고(法鼓), 물고기 모양의 목어(木魚), 구름 모양의 운판(雲板)을 쳐보았습니다. 절 뒷동산에도 올라봤습니다. 뒷동산에는 초록 잎이 무성한 동백나무가 의연히 서 있었습니다.

선암사 입구에서 돌아 나오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이 펼쳐졌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요즘 공원이나 등산로에도 황톳길이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하죠.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어두고 황톳길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모처럼 부산에 왔으니, 유명한 카페나 밥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스님께서 부산에서 유명한 휘낭시에와 피자 맛집을 추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발을 씻고 다시 대웅전으로 돌아와 스님과 잠깐 건강 강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른 자세를 익히고 귀 마사지도 하였어요. 내친김에 108배 할 때 쓰는 요를 깔고 앉아서 올바르게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원한 스트레칭도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정해진 프로그램이 다 끝났습니다. 보이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는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으로 향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예약해 둔 식당에서 미역국과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 물고기 모양의 목어(木魚), 구름 모양의 운판(雲板) 치기 체험을 했습니다.



▶ 뒷동산에 올라 내려 본 선암사 풍경



▶ 동백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암사 뒷동산



▲ 다 같이 찍은 사진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나쁘지 않은 날들로 채워가면, 멀리서 보았을 때 제법 괜찮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일탈은 나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스스로를 좋은 경험으로 대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겠지요. 회복과 치유라는 것은 이러한 정말 소소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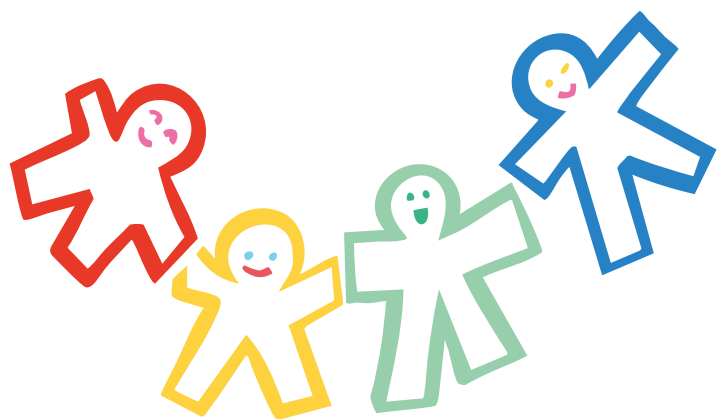
V

에필로그

- 1
지원사업에 함께한 사람들
- 2
청년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에필로그



지원사업에 함께한 사람들

4년 동안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여러 사람이 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부터 아름다운재단의 담당 매니저들, 그리고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함께한 여섯 명의 사람들이다. 일하는 청년여성이 놓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겪는지 찾아내어 분석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정을 같이 걸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 중 일부를 기록하였다. 긴 여정을 일단락하는 소감은 끝부분에 달아두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락됩니다. 우리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한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었는데, 일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인정받게 지원금보다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건강 문제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정'이 청년여성들에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돌봄, 빈곤, 은둔·고립처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마주한 문제들을 확인한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에 4년 치 통계를 정리해보니 사회적으로 공유할 만한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이것 잘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향수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상이나 상금은 성적이 좋을 때만 받는 것'인데 (지원사업) 산재회복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되게 (의미가)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적 인정도 있지만 이것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열심히 해도 욕먹고, 쫓겨나고... 위로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인식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산재구나'라는 식으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작은 계기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동안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건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확인 했는데, 특별히 주목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향수

저는 청년여성의 건강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주목한 사람들이 '어떤 청년여성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산재 회복비를 지원할 때 마련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가족의 자원에서 취약하다거나 지역 혹은 학력에서 불리한 여성들이 지원 대상으로 많이 선정되었죠. 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특정 직종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만든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천 명의 통계를 얻었으니 이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재진입하는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매년 저희가 집중하게 되는 게 빈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여성인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고려했잖아요. 그런 (취약한) 상황이니까 회복이 어렵고,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여성이고 청년인 사람들이 왜 아파지게 되는지,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빈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만난 산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제 또래이신 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에서 일했다거나...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삶의 행적이 쉽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들은 (행적은) 짧지만 비슷한 버전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분석할 때 든 생각이 이들의 적응 장애 원인은 ‘적응할 수 없는 일터’에 있구나 싶었어요.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는 이들이 학력 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적다는 이유로 취약성을 공격하죠.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과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취약성을 공격해서 모멸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 적응 장애 이상의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권도 적용되지 않고, 저항하기도 어렵고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없으니 상의할 곳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못한 채 고립되는 거죠. 여러 문제에 더해 관계적인 취약성 등 여러 가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건강 문제 발생 이후 산재보험 진입 단계에서부터 정보도 없고, 회복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구제 방법 등도 잘 모르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맷집이 가장 약하잖아요. 폭력에 취약하고요. 선택지가 없는 빈곤한 여성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빈곤이나 불건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 제도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거기에서 나오게 할 수 있나 그런 종류의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온 걸까요?

한국 사회에 약간 불행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불행해’ 같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굉장히 여러 유형의 취약 집단이 있는데, 청년여성 노동자가 제일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비가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이면 통념상 제일 건강한 때고, 노동 시장에 속해있고, 20대 여성에 갖는 발랄한 좋은 이미지들이 있죠. 응원봉 들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깨어 있고... 그런 밝고 좋은 이미지가 ‘청년여성’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청년 여성 노동자’는 진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20대 청년 여성, 특히 빈곤층의 노동하는 청년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청년여성) 착하고 성실한 이들로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MZ 오피스>에서 그려지는 모습이죠.

양극단의 모습으로 그려지네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거의 폭력에 가까운 노동환경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MZ 노동자’가 현실에 존재하겠지만, 지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과장된 허구처럼 느껴지긴 해요.

미디어에서 희화화되는 ‘MZ’의 모습은 경제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고용 안정성이 있거나 (이 직장을) 떠나도 상관없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거죠. 근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일하는 직장)에 붙어있어야 하니까 어찌 되었든 잘 보여야 하잖아요. 청년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는 일과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읽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서 하루에 8~12시간씩 일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드러내고, 일과 관련 있는 것임을 말해야겠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이야기’를 모았다는 점이 우리 지원 사업의 성과 중 하나겠네요.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없는 청년여성 노동자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회복이 더디고, 향후 비슷한 문제를 겪거나 질이 좋지 못한 일자리로 가게 되는 구조를 손보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김향수 그 사람들이 겪는 취약성이 노동 시장 자체에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지만, 젠더적인 취약성도 있죠. 계속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건지 연구 보고서에 잘 담기면 좋겠어요.

박한솔 김명희 선생님이 연구 보고서에서 다뤄주실 이야기가 많겠네요.

전수경 (제도 개선 방안과 별개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수정한다, 산재보험 제도를 고친다 등 각각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불충분해요.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이나 정신건강 문제의 핵심에 노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모른다는 말을 꺼내고, ‘여성 노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정말 확실하고 급진적인 의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 ‘노동’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같이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찾는 일도 필요할 거고요.

김향수 우리 지원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가령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들을 딱 보면, (내가 겪은 일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무얼 할 것인가로 가는 거죠. 개인의 불운이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청년여성) 노동조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모르는 일이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수경

사실은 요즘에 산재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이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재 정책을 예로 들자면, 해마다 수많은 단체·연구자들이 산재 감소 방안을 연구했어요. 20~30년 동안 모든 연구자가 프로젝트하고, 제도 개선안 연구하고, 해외 사례 연구하고 다 해봤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산재 줄이라고 말하면서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부가 진짜로 뭔가 (행동을) 할 때예요. 여성 노동 문제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계속 확인한 한 가지는 모든 여성에 대한 엄청난 착취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씩 건드려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판을 갈아엎자고 말해야 하는 문제 같아요.

김명희

저희가 만난 집단이 가장 조직화가 안 된 집단이잖아요. 직종별로 노동 조합도 안 되어 있으니 기존 사회운동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만나는 노동자 집단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예요. 뭘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뭉쳐서 뭘 하기는 어려운 집단인 것 같아요.

김향수

비슷한 생각이예요.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거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면, 우리만으로는 아마 힘이 안 실릴 거예요. 관심 있는 단체도 있고 관심이 없는 단체도 있겠지만, 우리 사업 결과를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향후 활동해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겠죠.

김명희

단체들이 다 각자의 이슈가 있고, 바쁘니까 다른 단체에서 뭘 했는지 알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간담회 같은 걸 꾸려볼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바로 뽀족한 무언가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함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명희
 자문위원장

힘한 세상에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나가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며, 천천히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자구요.

김향수
 자문위원

청년 여성들이 건강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아픈 기간 동안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아프지만 당당히 이야기를
 들려주신 청년 여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수지
 자문위원

지원사업을 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일터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청년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딛고 용기
 내어 이야기를 들려준 청년 여성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서현
 자문위원

노동건강연대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현재
 걸으로 보여지는 많은 산재 속에서
 가늠할 수 없는 분노만 치밀었을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였는데 많은
 일을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청년 여성들은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살아있다는
 것, 언제나 그것에 집중해야 하겠다
 다짐해 봅니다.

안현경
 자문위원

그동안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비로소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겪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더 많이
 알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자신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어디든 더 나은 일자리에
 갈 수 있다면, 더이상 아픔을 참지
 않아도 되겠죠. 청년 여성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자문위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복잡 다양한
 고립, 빈곤, 배제, 아픔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의 회복과 재기에 작은
 지지대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신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희지
 노동건강연대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청년여성들은 당연하게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나
 자조모임으로 만난 청년여성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조건들을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현실에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우리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청년여성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건강 이야기가 누구보다
 궁금했습니다. 가까이 경험을
 들려준 분들 덕분에 지원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뒤돌아봐도
 아쉽지 않은 순간들이네요. 이번
 지원사업에서 얻은 것으로 다음엔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노동건강연대가 다음 여정을 잘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해
 지원사업을 함께 꾸린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노동이라 부르는 일도 다 다른 노동이고, 청년이라 호명하는 사람들도 다 다른 청년들이며, 여성의 문제라 부르는 것들도 다 다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확입니다. 가장 고생한 박한솔 활동가, 김희지 활동가, 지구에서 가장 바쁜 김명희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변수지, 안현경, 이정현, 심서현, 김향수 선생님과 아름다운재단 박수진 매니저님, 박정옥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청년 여성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하다 다친 노동자 보호망의 빈틈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식적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없이 빠져나갔던 수많은 청년 여성 노동자의 보이지 않았던 아픔(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문제 등)과 청년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여성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놓였던 이들은 자신의 아픔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일하다 겪은 결과'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정받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이 청년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현재 사회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을 증명하는 귀한 자산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노동자를 포용하는 더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2 청년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그동안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에서 산재회복 지원금을 전달한 청년여성 노동자는 총 220명이다. 사업 4년 차를 마무리하며 전체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173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른 청년여성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고, 정성스러운 대답을 한가득 받았다. 이 책자의 마지막 장은 지원사업에 함께한 청년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다시 일할 마음과 용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게 감사함이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위로까지도 지원사업에서 받은 것 같았어요. 함께 모인 날, 교육받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붙인 스티커북은 제 책상 한편을 차지하고 있고, 늘 보고 있습니다. 배려해주신 활동가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힘내서 일해보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응원받는 느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는 순간들이 되려 힘이 드는 순간으로 바뀐 양날의 검이 되었을 때, 노동건강연대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었고 당장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해서 금전적으로 난처했던 때였는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움을 받은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동을 하며 겪었던 부당한 일에도 관심 갖고 기사로 써주셔서 마음에 맺힌 게 좀 덜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기력하게 일만 하던 나날에 단비 같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으로써 경험하는 많은 차별과
장벽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지원비를 받는
것보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된 조직 사회에서 그나마 내가
일을 하면서 받았던 큰 어려움과 건강 문제들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탓 아니다!

막막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로 치료를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회복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일이 산재가 되는 일이었구나,
나는 괴롭힘을 당한 게 맞았구나,
내가 의지가 약해서,
끈기가 없어서 일에서 도망친게 아니었구나'
하는 희망을 얻었어요

지원사업 덕분에 비싼 치료를 금전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회사는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했어도 어디선가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 지원사업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돈 걱정 없이 내 몸만 생각하며 병원에 가본 게
처음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 같아요.

애매하게 아파 참기만 했던 저도,
지원사업 덕분에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몸부터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찾기 힘든 것도 알아요.
상황이 힘들면 그럴 수 있고요.
그래도 한 줄만이라도 힘들다고 말해보면
점점 괜찮아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갑작스레 일상이 무너져 우울하던 와중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저에게
현실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었기에
정말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고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니 모든 여성분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깜깜한 눈앞에 한 줄기의 희망이었어요.

이번 지원사업으로 인해
다치거나 힘들 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혼자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도움의 손길이 닿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완전한 숨 쉬게는 아니어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나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쉴 수 있게 해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지원사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튼튼한 작은 울타리

나에게 힘을 얻어준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무탈하길 바랍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암흑시기에 한 줄기 빛일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고,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청년여성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신체적 약함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오는 질병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버텨줘서, 해내주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에는 비용 부담으로
가지 못했던 병원도 다니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식비도 해결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다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덕분에
정신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 쉴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어
그나마 쉴 수 있었으며 병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추가적으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얻고 큰 지원으로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니
건강적인 측면으로 도움받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 매우 든든했습니다!
주변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모든 청년 여성분들 모두들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에게는 한줄기 빛 같은 사업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찌들어있었던 와중에 너무 다행히 이렇게
좋은 사업이 추진되어 저에게는 정말 빛이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괜찮다 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부터 가보길 바랍니다.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으로 잠시나마 치료에
금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삶의 질이
상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던 일을 못하게 되어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지원사원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며, 저의 경험이
외면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미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지원금으로 병원 가고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힘이 되었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해주셔서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보내는 응원은 정말
저의 양분이 되는 느낌이에요!

직원분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치료비를 지원받아 금전적 부담을 덜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며 잠시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자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일해서 얻는 질병은 개인 혼자 부담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산재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 비슷한 분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원사업이 '인정'이었어요.
내가 일로 인해 아팠던 것에 대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로 인해 아팠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단체가 있다는 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티 내지 못하고 홀로 버티다
결국 퇴사하는 일이 아닌,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일하는 청년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일자리도 협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ㅠㅠ!

좀 더 노동환경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맘 편히 산재신청 및 승인이
이뤄지거나, 임금에 맞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허용 등!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잠시나마 어머니
간병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 등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저처럼 간병을 하느라 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돌봄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던것
같아요!! 내년에도 시행하게 된다면,
열심히 홍보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험이 없다면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일수록 더욱더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무조건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청년여성들 화이팅입니다!!

육체노동으로 힘든 여성 근로자에게 선물 같은
지원사업이었어요. 지원받은 돈으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먹었어요.
고된 삶에 힐링이 되어주어 감사했습니다!

일을 쉬는 기간이 의도치 않게 길어지고,
주거불안정과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번 지원사업에서 도와주셔서
두 달 치의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 막막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재활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건강 회복을
훨씬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 여성들을 위해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직 젊은 여성분들 건강이 나빠졌을 땐
눈치 보지 말고 본인부터 챙기세요.
당장 1~2년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우리는 멋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한계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커리어나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일터란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것을 증명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예요.
그곳에서 살아남아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아주고 지원해주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요.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도 꼭 필요합니다.

아플 때 결국 끝까지 지켜주고 신경 써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여성을 위한 이 지원사업을 통해
공감과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로 지친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말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보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금전적으로
빠듯해 힘들었는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고
허리 주사도 맞을 수 있어서 희망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서류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일 처리도 매우
빠르셔서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일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일할 수 있음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버티내세요.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청년 여성의 노동이 더이상 아픔으로만
설명되지 않기를

숨구멍이었어요. 퇴사 후 살아가는 게 너무
막막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과격한 움직임이 반복됨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여
거의 회복되었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알려고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아픔을
위로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더 일을 잘하지 못해서,
내가 미련하게 오래 잡고 있어서 생겨난 질병이라고
스스로 다그쳤었는데... 덕분에 '나만 탓할 게 아니라
산재에 해당하는 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겁나서 산재 신청까지는 못했지만,
지지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과 지원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 거예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었던 지원을 지원사업에서 받게 되어 치료받고
나아질 수 있었어요. 또한 산재신청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치료비 만만치 않았는데 지원해주셔서 맘 편히
치료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든든했습니다.

치료받는 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덕분에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민 여성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센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모든 것을
멈춰야 했을 때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으로
인해, 아픔을 인정받고, 회복을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해당 사업을 소개받고,
지원 후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은
다른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고
불필요한 내용은 많이 배제하고 필요한 내용들로
서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셔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야근도 많았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마음의 무게와 짐이 컸었습니다. 또한 건강 악화로
인해 직종 변경 자체를 고려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퇴사하고 잠깐 쉬어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고 아끼고 아껴 써도 최소생활비는 지불해야
했어서 당시에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줄기의 동아줄 같았고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다시 같은 직종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직했고,
이전처럼 잦은 야근은 하지않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여성이 많은 혜택을 받을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회복을 위해 힘쓰는 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려운 기간 동안 정신과 몸 둘 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으로 지치고 힘이 들 때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재발로
치료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부담되는 시기에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일하는 청년 여성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고,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티내며 쌓아온 시간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줍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꿈과 노력을 응원해주는
사회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은 자기만이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일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여성 모두 화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금 나를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찢어진 무릎을 꿇매느라 침대에
누우면서도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사고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난 기간에 항상
'나'보다는 '타인'이 우선이었던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잘 돌봐야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부터 잘
돌보며 일해야 한다고요. 내가 힘이 있어야 일도
하는 거고, 취미도 갖는 거고, 뭐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걸, 아픈 걸 굳이 참지
않고 표현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서
풀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비로 전전공공할 때 정말 큰 도움 되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프면 쉬고
앞으로를 위해 아껴두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몸도
정신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넘어
저에게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어요!
치료와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의욕을 잃기 쉽지만,
지원금은 다시 일어서고 미래를 준비할 힘을
복돋아 주었어요.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셔서 일하는 청년여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힘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셔서 일하는 청년여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수술비와 상담비 등을 고민하고 걱정하던 때였어요.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무사히 치료 받아서... 지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기분이라 힘이 됐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춰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고 챙겨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지원받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 덕분에 치료비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청년여성들이 안전한 일자리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이자 숨통을 트여주는 단비 같았어요, 사실은 '이거 한 번으로 얼마나 도움되겠다' 싶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당장 금전적인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반가웠고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일하다가 다쳐도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롭고 괴로웠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여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아픈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다쳐서 치료받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원비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받지 못했다면 현재까지 오는데도 더 느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당시 정말 정말 힘들 때였어요.
일자리도 잘리고, 돈도 없고 소중한 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특히나 정신적 고통을 본인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적 어려움으로 치료는 엄두조차 못 내던 시절에 지원사업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정신도 함께 많이 아팠었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병원에 잘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ㅠㅠ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연명하게 해준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작심삼일 반복이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프고 생계유지 걱정이 되었는데, 최소한 병원 통원에 드는 3~5만 원의 치료비와 교통비 걱정이 줄었고, 밥값을 아끼기 위해 굶기보다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게 되었어요.

숫아날 구멍은 있다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나의 슬픔에도 언젠가, 누군가가 힘이 되어준다고. 그러니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거나 도와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려고 할 때 생계를 도와주신 정말 감사한 제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몸 아껴가며 일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직 후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같은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성치 않게 될까 두려워서 쉽게 용기 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훌쩍 보낸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덕분에 시간, 병원비, 약비 등 최소한의 나를 위한 게 갖추어지니 몸은 물론 회복되거나와 마음도 점차 나아지고 지금은 삶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또 이 지원사업이 나의 삶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 나의 상태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것이 마음에 든든함이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하며 '원래 일하면 다 그렇지, 다 아파, 그래도 어떡하겠니, 다시 일 구해야지, 얼른 재취업 준비해야지' 등과 같은 말들이 돌아와 더욱 괴로운 날을 보내던 중,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청년여성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긴 터널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보시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몸도 마음도 부디 건강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실비보험이 있어도 어느 정도 여윌돈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 몇 번의 치료가 가능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발행일 2025. 12. 4
발행처 노동건강연대
디자인 모야간에 스튜디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102호
연락처 02) 469-3976

편집 박한솔
집필 김향수, 김희지, 박한솔, 안현경, 전수경
자문위원 김명희, 김향수, 변수지, 심서현, 안현경, 이정현
* 가나다순

*발행처의 허락없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2025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